22일 Market Index
코스피 5533.77 (-201.89)
코스닥 764.10 (-28.66)
금리(국고채 3년) 3.840 (+0.018)
환율(원·달러) 1321.75 (-3.45)

metro® 경제

하나금융그룹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뉴메트로 11주년 대한민국 희망을 찾아서 2026년 10월 23일 금요일

"노화, 질병과 다르지 않아… 적극적 개입 통해 치료해야"

2026 제약·바이오 포럼

불로장생(不老長生)을 갈망하던 인류의 영원한 꿈이 마침내 현실의 영역으로 성큼 다가섰다. 노화(aging) 정복은 더 이상 영화 속 상상이 아닌, 만성질환처럼 정밀하게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의학의 영역으로 재정의 되고 있다.

21일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 주최로 열린 '2026 제약·바이오포럼'에 모인 국내 바이오·의학 전문가들 역시 "자연스러운 생리적 노화 역시 조로증과 같은 질병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노화는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치료해야 하는 의학적 상태"라는데 동의했다. 〈관련기사 L6·L7면〉

생명공학硏 '바이오마커' 개발
혈액 내 DNA로 생체 나이 측정
노화세포 선택적 제거 연구 추진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인 맞춤형 노화 진단부터 유전자·면역 리프로그래밍, 오가노이드 기반 역노화 소재 발굴 등 국내에서 진행 중인 노화 치료 및 역노화의 최신 연구 사례가 잇달아 소개되며 기대를 안겼다.

권은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노화융합연구단장은 생물학적 나이와 노화 속도를 정확하고 저렴하게 측정할 수 있는 한국인 특화 진단 기술을 공개했다.

연구단은 한국인의 혈액 내 DNA 메틸레이션 프로파일을 인공지능(AI)으로 학습·분석해 정밀하고 저렴한 생체 나이 측정 바이오마커를 개발했다. 근육 감소나 노쇠에 따른 노화 속도를 측정할 뿐만 아니라, 노인성 질환 약물의 생체 나이 감소 효과를 고감도로 검증한다.

운동 시 근육에서 혈액으로 분비되는 '운동 유래 혈액 분비 물질(Exercise Factor)'을 규명해 골다공증 및 근육량 개선 기전을 입증했다. 이와 함께 체내 노화 세포를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치료제 연구 및 조혈 줄기세포 노화 억제 연구가 함께 추진되고 있다.

세포 내 유전자 및 후성유전 정보의 복원을 통한 역노화 기술도 핵심 솔루션으로 부상했다.

뇌인지과학자인 양재현 카이스트 교수는 DNA가 접히고 발현되는 방식을 결정하는 '후성유전 정보(소프트웨어)'의 손상이 노화의 주원인임을 제시했다. 이어 OSK 유전자를 발현시켜 세포 노화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리프로그래밍 기술을 소개했다. 이 유전자를 시신경이 퇴행한 마우스 모델에 적용할 경우 시력이 복구되고, 전신에 투여할 경우 수명이 약 2배 늘어나는 결과를 낳았다.

조경아 메디스팬 대표는 면역 체계 자체를 재조정(Re-programming)해 건강 수명을 늘리는 연구를 공개했다. 선천면역 수용체인 TLR5를 자극하여 강한 염증을 유발하는 대신 세포를 보호하는 '보호적 면역' 체계로 유도하는 방식이다. 메디스팬은 TLR5 수용체 자극 기술(MSP10)을 활용해 노인용 폐렴·인플루엔자 백신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백신 보조제를 개발 중이다.

조경아 대표는 "주사 방식이 아닌 비강 스프레이, 마이크로니들 패치 형태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며 "미국 국립보건원(NIH) 산하 국립알레르기·감염병 연구소, 스탠포드 대학교 등과 함께 글로벌 차세대 백신 개발 및 면역 재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6 제약·바이오포럼 '노화를 되돌리다:역노화 기술이 여는 바이오산업의 미래'의 주제로 21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열렸다. 양재현 KAIST 뇌인지과학과 교수가 '세포의 정보로 이해하는 노화와 역노화'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최규춘 기자

기준금리 3% 동결… 추가 인상기조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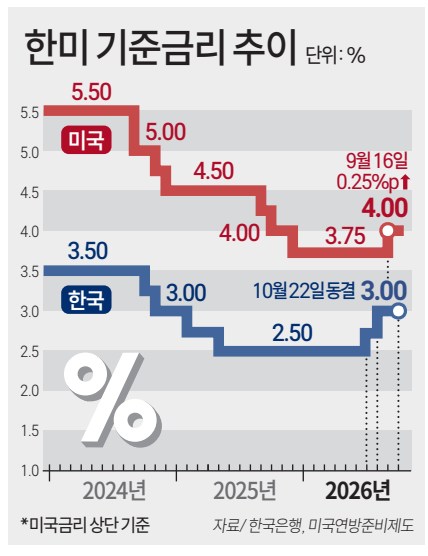
한은, 반도체 호조에 수출·투자 증가
올해·내년 성장률 전망 상당폭 웃돌 것
내년 소비자물가·근원물가 상승 전망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00%로 동결했지만 추가 인상 기조를 유지했다. 중동사태와 주요국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자 앞선 두 차례 금리 인상의 효과를 점검하기로 했다.

22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키로 결정했다. 금통위원 7명 모두 동결에 찬성했다. 한은은 지난 7월과 8월에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p) 인상한 바 있다. 〈관련기사 3면〉

금통위는 반도체 호조에 따른 수출·투자 증가와 소득 여건 개선에 힘입은 소비 회복으로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8월 전망치인 3.3%, 2.9%를 각각 상당폭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한미 기준금리 추이 단위: %



*미국금리 상단 기준 자료/ 한국은행, 미국연방준비제도

물가에 대한 경계도 이어갔다. 9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9%, 식료품·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2.8% 상승했다. 금통위는 내년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이 기존 전망치인 2.3%, 2.5%를 각각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의 비용 상승이 물가에 반영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수요측 압력도 점차 커지면서 물가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이란 판단이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주택관련대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가 다시 확대된 점을 짚었다. 수도권 주택시장과 가계부채를 둘러싼 금융불균형 위험에도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통위는 향후 정책에 대해 "물가·경기 흐름 및 금융안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

내년 주요기업 성과급 60조~70조 추정

한은, 소비회복 점차 확대 전망

한국은행이 반도체·자동차·조선업 주요 기업의 내년 성과급을 60조~70조원으로 추정하고 소비 회복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성과급·배당은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재정지원과 환율 하락은 중저소득층의 소비여력을 높일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22일 공개한 '향후 민간소비의 회복 여건 점검'에서 올해 상반기 민간소비가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해 경제성장률 3.8%에 못 미쳤다고 설명했다. 교육·보건 등 필수 지출은 견조하지만, 선택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지출의 회복은 화장품·미용 등 일부 품목에 그쳐 회복의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내년에는 주요 기업의 성과급이 올해 10조9000억원의 약 6배로 늘어날 것으로 봤다. 올해 예상 영업이익에 기업별 산정 기준을 적용한 세전 추정치로, 실제 지급 규모와 방식에는 불확실성이 있다. 특히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과 SK하이닉스의 내년 1분기 성과급이 약 6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노동패널을 활용한 분석에서 일시 소득이 100만원 늘면 소비는 약 11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세금 등을 제외하고 현금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성과급 확대는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을 0.1~0.15%포인트(p) 높일 것으로 예상됐다. 〈2면에 계속〉
/김주형 기자 gh471@

프로그래밍 언어 PHP 보안 결함… 글로벌 웹사이트 '비상'

과기부, 사이버위기 경보 '주의' 격상
일부 유럽국가서 웹사이트 운영 중단

전 세계 웹사이트의 약 75%가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 PHP에서 치명적인 보안 취약점이 발견돼 정부 당국이 사이버위기 '주의' 경보를 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정오를 기점으로 민간 분야 사이버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다. 전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국내 기업·기관에 보안 조치를 당부한 것에서 나아가 구체적인 대응 단계에 돌입한 것이다. '주의' 단계에서는 침해 대응 인력을 증원하고, 비상출동조 상시 대기한다.

현재 네덜란드와 핀란드 등 일부 유럽국가는 예방 차원에서 웹사이트 운영을 중단했으며, 일본과 호주 등의 사이버보안 당국도 긴급 보안 조치에 나섰다.

오픈소스 언어 중 하나인 PHP는 웹사이트 제작 시스템인 워드프레스와 블로그, 기업 홈페이지 등에서 활용된다.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 내역을 조회하면 PHP로 작성된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정보를 찾아 이용자에게 보여준다.

이번에 확인된 취약점은 예외 상황 처리 오류와 해제된 메모리 재참조 등 2건이다. 이에 PHP 개발진은 취약점 2건을 수정한 새 버전을 공개한 상황이다.

이번 PHP의 보안 결함은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외 수 많은 웹사이트가 PHP에 의존하고 있어서다. 전 세계 웹사이트의 약 75%가 PHP를 사용하며, 전체 웹사이트의 약 43%가 사용하는 워드프레스도 PHP 기반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로그인 없이 외부에서 서버에 악성 명령을 실행할 수 있어 고객정보 유출이나 홈페이지 변조가 우려된다. 게다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PHP 실행 환경에서는 정부 기관과 기업, 개인 웹사이트까지 장악할 수 있다. /조민선 기자 msjo@

메트로 한줄뉴스



▲외교부, '北지뢰 대응' 안보리에 서한 발송키로 …"정전협정 위반"
▲검찰총장 대행 '국무회의 배석' 논쟁에 "사건 언급할 생각 없어" /사진 뉴시스
▲한동훈 "제미나이에 물으니 李 재판받으라더라 …AI 국정농단"
▲직계존속 살인죄 가중처벌 합헌 결정…헌재 "인륜관계 보호"
▲ 유홍준 관장, 국립중앙박물관과 작별 인사…취임 1년 3개월 만
▲5시간 만에 돌아온 부캉이…상처 깊어지면 2주 내 폐사 가능성

이재용 회장, UAE 등 중동 현장경영
〈삼성전자〉
AIDC·에너지 인프라 사업기회 발굴

9개국 임직원에 선물·편지 전달
알다프라 발전소 건설현장 방문
시장 변화·향후 사업방향 등 논의



21일(현지 시각 기준) 아랍에미리트(UAE)에 있는 알 다프라(Al Dhafra) 가스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 방문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삼성전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아랍에미리트(UAE)를 찾아 중동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현지 임직원 격려에 나섰다. 전쟁과 지정학적 갈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에너지 인프라 사업의 진행 상황을 살피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22일 삼성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21일(현지시간) UAE 아부다비에 있는 알 다프라 가스화력발전소 건설현장을 방문했다. 이 회장은 현장 직원들과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공사 일정과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삼성물산·삼성E&A 경영진과 중동 시장 변화 및 향후 사업 방향을 논의했다.

알 다프라 가스화력발전소는 삼성물산이 현지 건설사 트로잔 제너럴 컨트랙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건설 중인 대형 전력 인프라 시설이다. UAE의 산업 발전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향후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첨단 산업의 전력 공급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물산은 UAE 바라카 원전 건설을 통해 축적한 시공 역량을 바탕으로 중동 인프라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삼성E&A 역시 UAE를 중동·아프리카 사업의 거점으로 삼아 정유·가스·석유화학 플랜트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삼성은 기존 원전과 가스복합발전 분야를 넘어 AI 데이터센터와 에너지 인프라 등으로 사업 기회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이 회장은 현장 직원들이 이용하는 식당에서 점심을 함께하며 근무 여건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어 양사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해외 사업 현안과 현지 근무 환경 등을 논의했다.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도 현장을 지키는 임직원들의 안전과 사기 진작을 직접 챙긴 것이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16일에도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이란 등 중동 9개국에 파견된 관계사 임직원 730명과 국내외 거주 가족들에게 격려 선물과 감사 편지를 전달했다. 파견 임직원들에게는 현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300만~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했으며, 국내 거주 가족들에게는 전통시장과 지역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 200만~300만원을 전달했다. 지난 3월에도 중동 3개국에 체류하는 임직원 500여명과 가족들을 격려한 바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애플, 태블릿 등 OLED 전환 속도
'K-디스플레이' 수혜 기대감 커져

삼성D, 신형 맥북 등 OLED 패널 공급
LGD , IT용 OLED 사업 확대 추진

애플이 노트북과 태블릿 등 정보기술(IT) 기기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적용을 확대하면서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의 수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 제품에서는 기존 액정표시장치(LCD) 개발도 검토하면서 OLED 전환 속도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오는 28일 오전 10시(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프로 앤 텔(Pro and Tell)'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OLED 터치스크린을 탑재한 맥북 프로와 OLED 아이패드 미니 등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두 제품에 OLED 패널을 독점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도 물량 일부는 올해 3분기부터 공급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4분기에는 공급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애플의 OLED 적용 확대에 따라 IT용 패널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7월 충남 아산에서 8.6세대 IT용 OLED 생산라인 양산을 시작했다. 약 4조1000억원을 투입한 해당 라인은 기존 6세대보다 유리원판 면적이 약 2배 커 생산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레노버에도 노트북용 탠덤 OLED를 공급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도 IT용 OLED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미세금속마스크(FMM) 없이 화소를 형성하는 차세대 패터닝 기술 'FLiPP(플립)' 개발에 성공했다. 기존 WOLED 생산 인프라를 활용해 공정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로, 노트북과 모니터 등에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이날 발표한 3분기 실적에서 매출 6조2770억원, 영업이익 2506억원을 기록했다. 회사는 IT용 고부가 제품 확대와 원가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올해 글로벌 노트북 패널 출하량이 전년 대비 3% 감소하는 반면 OLED 패널 출하량은 50%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OLED 노트북 패널 출하량도 24%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유비리서치는 애플의 연간 OLED 패널 수요에서 IT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4.1%에서 2030년 12.5%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국내 업체들의 IT용 OLED 공급 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애플이 일부 제품에서 LCD 개발을 병행하면서 OLED 전환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메모리 가격 상승과 OLED 패널의 높은 제조원가 등을 고려하면 완제품 업체들이 제품별로 OLED 전환 시기를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며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에는 OLED 적용 확대가 긍정적인 요인이지만 실제 수혜 규모는 향후 제품별 채택 여부와 시장 수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김동선, 공개매수 물량 확대… 2100억 투입
〈한화M&S 미래전략총괄 사장〉

기존 1606만주에 1014만주 추가
일반주주 매도기회 감소 우려 반영



김동선 한화머시너리앤서비스홀딩스(한화M&S) 미래전략총괄 사장(사진)이 공개매수 물량을 1014만3000주 늘린다. 특수관계인의 청약 참여로 일반주주의 매도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매수 규모를 확대한 것이다.

김동선 사장은 한화M&S 한화M&S 보통주 1014만3000주를 추가 공개매수하는 내용의 정정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고 22일 공시했다.

공개매수 물량은 기존 1606만주에서 2620만3000주로 늘어나 전체 물량의 약 31%에 해당한다. 매수 가격은 주당 8000원, 매수 기간은 지난 1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로 기존과 같다. 매수 규모가 확대되면서 김 사장은 이번 공개매수에 개인 자금 약 21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번 물량 확대는 김동관 한화그룹 수석부회장과 김동원 한화생명 부회장이 공개매수 청약 의사를 밝힌 데 따른 조치다. 두 사람은 각각 676만2000주(8%)와 338만1000주(4%)를 청약할 예정이다. 합산 물량은 기존 매수 예정 수량의 63.2%에 달한다.

한화M&S는 두 사람의 참여로 일반주주의 매도 기회가 제한될 수 있어 이들이 청약할 물량만큼 매수 수량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추가 물량은 두 사람의 청약 예정 수량을 합한 1014만3000주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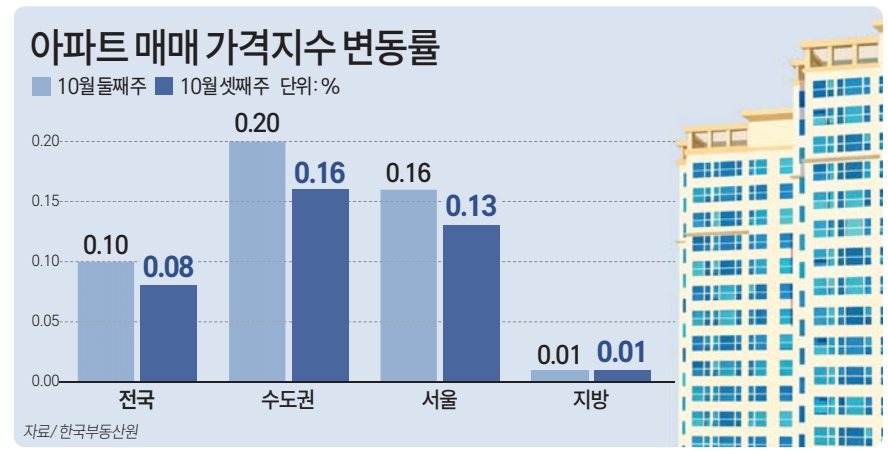
김 사장은 지난달 주주총회에서 제기된 주가 하락과 미래 성장에 대한 주주들의 우려를 반영해 이번 공개매수를 추진했다. 당초 전체 보통주의 약 19%를 매수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정으로 비중을 약 31%까지 높였다.

공개매수 발표 이후 주가도 상승했다. 한화M&S의 21일 종가는 7440원으로 발표 직전 거래일인 지난 8일 종가(6080원)보다 22.37% 올랐다. 공개매수 가격인 8000원은 지난 8일 종가보다 약 32%, 발표일 기준 최근 한 달 평균 주가인 약 6300원보다 약 27% 높은 수준이다.

한화M&S 관계자는 "이번 추가 매수는 일반주주의 매도 기회를 폭넓게 보장하는 동시에 주주 목소리 수용과 책임경영 의지를 한층 강화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주주가치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M&S는 한화그룹 테크·라이프 부문의 지주사로, 올해 8월 인적분할을 통해 설립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다. 테크 부문에는 한화비전·한화세미텍·한화모멘텀·한화로보틱스가, 라이프 부문에는 한화갤러리아·한화호텔앤드리조트·아워홈 등이 속해 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서울 집값 89주 연속 상승… 강북·외곽 '껑충'

부동산원 "대단지·역세권 중심 상승"

서울 집값이 89주 연속 오르며 다시 한 번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강남3구는 일제히 하락했지만 강북과 외곽 지역이 상승세를 이끌었다.

이와 함께 서울은 전세가격 상승세도 가팔라지면서 올해 들어 전세값 상승률이 매매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은 지난 19일 기준 매매가격지수는 0.08%, 전세가격지수는 0.11%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3% 올랐다. 상승폭은 축소됐지만 89주 연속 오름세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일부 지역에서는 매매가격이 하락 조정됐지만 정주여건이 양호하고 수요가 이어지는 대단지와 역세권, 중소형 규모 등을 중심으로 서울 전체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성북구와 서대문구가 각각 0.36%씩 올랐고 ▲중구(0.35%) ▲도봉구(0.33%) ▲중랑구(0.3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서초구는 0.32% 하락한 가운데 강남구와 송파구도 각각 0.31%, 0.13% 내렸다.

경기는 한 주간 0.21% 상승한 가운데 남부권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화성 병점의 상승률이 0.65%에 달했고 ▲화성 동탄(0.57%) ▲안양 동안(0.56%) ▲성남 분당(0.53%) ▲군포(0.53%) ▲수원 영통(0.52%) 등도 0.5%를 웃돌았다.

연초 이후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은 8.73% 올라 매매가격 상승률 8.63%를 앞질렀다.

자치구별로는 성북의 전세값 상승률이 14.93%로 가장 높았고 ▲노원 14.31% ▲도봉 11.38% ▲성동 11.26% ▲강북 11.24% ▲금천 10.08% ▲송파 10.06% 등도 올해 들어서면 10% 이상 올랐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내년 상반기 소비회복 효과 본격화 전망

›› 1면 '내년 주요기업 성과급'서 계속

효과는 지급 시기가 집중된 내년 상반기에 본격화할 전망이다. 다만 고소득 대기업 종사 가구가 주로 수혜를 받아, 이들의 지출이 다른 업종의 매출과 가계소득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봤다.

반도체 기업의 배당 확대도 올해 4분기 이후 소비를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 제고 효과는 약 0.05%p로 추정됐다. 주식을 보유한 고소득층의 선택적 지출을 중심으로 나타나겠지만, 주식 보유층이 넓어지면서 파급 범위가 과거보다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민간소비 회복세는 아직 품목·계층 전반으로의 확산이 제한적이나, 내년으로 갈수록 반도체 경기 호조의 영향이 파급되며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환율 잡고 시간 벌었다… 추가 금리 인상 '물가·내수'에 달려

한은, 기준금리 3% 동결

선제 금리 인상으로 정책 여유 확보
원·달러 환율 두 달 새 60원가량 하락
내년 근원물가 상승 압력 여전히 부담
반도체 호황의 소비·임금 확산 주목
주택대출 증가·일부 집값 상승 경계



2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관련 총재 기자간담회에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발언하고 있다.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00%로 동결하면서도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선제 인상과 환율 안정으로 추가 지표를 확인할 여유는 확보했지만, 내년 물가 압력과 주택시장 위험은 남아 있다는 판단이다. 앞선 긴축이 성장·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반도체 호황의 내수 파급을 함께 확인하는 과정이 다음 금리 결정을 가를 전망이다.

◆ 선제 인상으로 확보한 여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2일 금통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기준금리를 연 3.00%로 유지했다. 7월과 8월 각각 0.25%포인트(p) 씩 올린 뒤 인상 효과를 점검하기로 했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선제 대응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결정이나 시장 변동에 쫓기지 않고 국내 여건에 맞춰 정책을 펼 여유를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환율 안정과 수입물가 억제, 금융안정 효과를 들며 "시간을 벌었다"고 말했다.

정책 여유를 보여주는 대목은 환율이다. 한은 참고자료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지난 8월 26일 1384.8원에서 10월 21일 1325.2원으로 59.6원 하락했다.

신 총재는 "8월 간담회 이후 환율 변동성이 줄었다"고 평가하면서 예측 가능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9월 연준의 금리 인상에도 국내 금융시장이 비교적 안정됐고 환율도 하향 안정됐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환율 하락에 통화정책 기조 전환과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에 따른 외환 수급 개선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봤다. 환율 안정은 수입품과 원자재의 가격 부담을 덜어준다. 외부 비용 상승이 국내 가격으로 옮겨가는 압력을 낮추면, 한은으로서는 앞선 긴축의 효과를 확인하며 추가 대응 시점을 판단할 여지가 생긴다. 신 총재가 동결을 선제 대응의 결실로 평가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정책 효과를 평가할 때에는 주택시장에 남은 위험도 함께 봐야 한다. 신 총재는 선제 인상이 주택가격과 금융취약성지수의 상승 속도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권 가계대출이 기타대출 순상환으로 줄어든 가운데서도 주택관련대출은 증가했고, 서울 중저가 주택과 경기 일부 지역의 가격 오름세는 다시 확대됐다. 앞선 인상의 효과를 점검하는 과정에서도 주택 부문의 대출·가격 흐름은 계속 경계해야 하는 셈이다.

◆ 내수 회복이 다음 금리 변수

물가 전망은 긴축 기조 유지를 뒷받침한다. 신 총재는 내년 근원물가 상승률이 8월 전망치인 2.5%보다 높아질 것으로 봤다. 식료품·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9월에도 전년 동월 대비 2.8% 올랐다. 환율 하락으로 수입 비용 부담이 완화되더라도 물가 압력이 다른 경로에서 커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

신 총재는 "수요 쪽의 압력도 분명히 있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유가 반등과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의 전이뿐 아니라 소득 여건 개선에서 나오는 수요 압력도 함께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반도체 수출·투자 호조가 소비와 임금으로 넓게 퍼질수록 내수 회복의 지속성과 물가 압력을 함께 가늠해야 한다. 한은이 물가 경로의 변수로 내수 개선 속도와 임금 상승세의 확산 정도를 명시한 이유다. 수출 호조 자체와 함께 가계소득·소비로 이어지는 정도가 추가 인상의 판단 근거가 될 전망이다.

다음 금리 판단에서는 반도체 수출 호조 자체와 함께 내수 파급을 확인하는 일이 중요해진다. 3분기 국내총생산(GDP)과 10월 물가는 성장·물가의 상방 위험이 실제 지표로 얼마나 나타나는지 보여줄 자료다. 한은은 11월 수정 경제전망도 제시할 예정이다. 신 총재는 성장 등 여건을 고려하는 중기 대응 원칙 아래 내후년인 2028년 무렵 물가가 목표인 2%에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했다.

최종금리 역시 새 지표에 따라 판단할 여지를 남겼다. 신 총재는 "채권시장에서 추정하는 금리를 참고한다"며 "반드시 우리가 거기에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스페이스X·테슬라 합병 논의 본격화… 서학개미 '주식 교환비율' 촉각

머스크, 양사 합병 가능성 공식화
스페이스X AI 성장에 기업가치 급등
테슬라 주주 프리미엄 20~35% 거론



Chat GPT로 생성한 이미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와 테슬라의 합병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합병비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와 테슬라의 합병 검토가 공식화되면서 양사 주주에게 적용될 교환비율이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인공지능(AI) 사업을 앞세운 스페이스X의 기업가치가 빠르게 높아지는 가운데 테슬라 주주가 합병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프리미엄을 인정받을지가 관건이다.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 상위 종목인 테슬라의 합병 논의인 만큼 서학개미(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국내 투자자의 테슬라 보관금액은 217억6734만달러로,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해외 종목으로 꼽힌다. 스페이스X의 보관금액은 27억9634만달러(17위)로 집계됐다.

앞서 20일(현지 시각) 머스크는 스페이스X 3분기 실적 발표 후 테슬라와 스페이스X 합병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현재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합산 시가총액은 약 3조7000억달러로, 합병이 성사되면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거래가 된다.

이후 블룸버그통신 등은 양사의 합병 계획을 내년 상반기 발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 중 합병을 마무리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되지만,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은 변수로 남아 있다. 민주당이 상·하원 가운데 한 곳이라도 다수당 지위를 확보할 경우 머스크의 사업 전반이 의회의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머스크는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들을 지원하기 위해 약 3억6900만달러(약 4890억원)를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병 과정에서 핵심 쟁점은 양사의 기업가치를 어떻게 평가해 교환비율을 정하느냐다. 주식 교환 방식으로 합병할 경우 양사의 상대적 기업가치에 따라 기존 주주들이 받게 될 합병 후 지분율이 달라진다.

스페이스X는 올해 3분기 매출 145억7500만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61% 성장했다.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 11억달러 적자에서 44억달러 흑자로 전환했다. AI 관련 매출이 75억6000만달러로 늘며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영향이다. 성장세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스페이스X는 2027년 1분기 매출이 330억~37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올해 3분기 매출의 약 2.3~2.5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스페이스X의 성장 기대가 기업가치에 높게 반영될수록 테슬라 주주에게 적용되는 교환비율이 불리해질 수 있어, 테슬라 주주가 어느 정도의 프리미엄을 인정받을지가 관건이다. 캐나다 RBC캐피털마켓츠와 JP모건 애널리스트들은 테슬라 주주가 합병에 동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20~35% 수준의 프리미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

댄 아이브스 요크빌 아이브스 파트너는 "이번 합병은 두 회사 모두에 있어 당연한 선택"이라면서도 주주들이 합병을 승인하려면 "테슬라 주가가 550달러 수준이 돼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머스크의 지배력 변화도 변수다. 머스크는 차등의결권 주식 등을 통해 스페이스X 의결권의 약 85%를 보유하고 있지만 테슬라 의결권은 약 20% 수준이다. 합병 이후 지분 구조와 주식별 의결권 설계에 따라 머스크의 지배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하은 기자 godhe@

삼성전기·LG이노텍, 엔비디아와 동맹 강화… AI 시장 공략 속도

삼성전기, AI 반도체 기판 공급 본격화
엔비디아와 공동 투자 생산라인 확충
LG이노텍, 로봇용 첨단 센싱 기술 공개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이 엔비디아와 협력을 확대하며 인공지능(AI) 관련 사업 강화에 나섰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1일 엔비디아와 AI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한 전략적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발표했다.

LG이노텍도 이날 엔비디아의 최신 기술을 적용한 로봇용 센싱 솔루션을 공개하며 협력 확대 계획을 밝혔다.

삼성전기와 엔비디아는 공동 투자를 통해 AI 반도체 패키지기판 생산시설을 확충한다. 삼성전기는 세종과 부산 사업장에 전용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올해부터 엔비디아에 차세대 반도체 패키지기판을 다년간 공급할 계획이다.

삼성전기는 앞서 지난달 세종사업장 내 플립칩 볼그리드어레이(FC-BGA) 신규 공장 증설에 4조27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인프라 투자로, 투자 기간은 2028년 5월 31일까지다.

공급 품목은 엔비디아의 연산 칩셋용 기판과 데이터센터 내 칩 간 초고속 연결을 담당하는 네트워크 스위치용 패키지기판이다.

삼성전기는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물량이 향후 수년간 연평균 두 자릿수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8년에는 관련 물량이 전체 패키지기판 생산능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기는 기판 내부에 적층세라믹콘덴서(MLCC)와 실리콘 캐패시터를 내장하는 공정 등 첨단 패키징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AI 반도체용 기판은 면적이 넓고 층수가 높아 초미세 회로 구현과 열변형에 따른 휨 현상 억제가 중요하다.

LG이노텍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GTC Berlin'에서 엔비디아의 홀로스캔 센서 브리지(HSB) 기술을 적용한 3메가픽셀(MP) 카메라 모듈과 멀티모달 비전 시스템(MVS) 등을 공개했다.

HSB는 센서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중앙처리장치(CPU)를 거치지 않고 AI 컴퓨터로 직접 전송하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와 로봇 등 피지컬 AI 시스템이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양사는 향후 휴머노이드 로봇용 비전 센싱과 로봇 핸즈 등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한다. LG이노텍은 엔비디아의 차세대 플랫폼과 연결 가능한 센싱 솔루션을 개발해 내년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와 GPU 기술 콘퍼런스(GTC)에서 공개할 계획이다.



삼성전기 수원사업장 전경. /삼성전기

/차현정 기자 hyeon@

공장 일정 맞출 송전망 구축 속도… 주민 협의·인허가 '변수'

⑤ 용인 메가클러스터

양사 총 15GW 전력 필요 예상
올해 총 6GW 협약… 내년 3GW 추가
도로 확장, 지하 송전시설 공동 추진
전력 사용 시점 맞춰 장비 발주 병행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전력 공급 협약이 상당 부분 마무리되면서 송전망 건설 기간 단축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반도체 공장 건설과 전력시설 확충 일정을 맞춰야 하는 만큼 도로·송전망 공동 건설과 기존 시설 활용, 인허가 절차 개선 등이 주요 대안으로 거론된다.

22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에는 삼성전자 국가산업단지 9기가와트(GW), SK하이닉스 일반산업단지 6GW 등 총 15GW의 전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는 지난 2024년과 올해 각각 3GW씩 총 6GW, SK하이닉스는 총 6GW의 공급 협약을 체결했다. 한전은 삼성전자의 나머지 3GW에 대한 협약을 내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공급 협약과 실제 전력 공급은 별개다. 송전선로와 변전소가 완공돼야 공장 가동에 필요한 전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인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시설과 기존 송전망을 활용해 초기 전력을 공급받고, 이후 추가 시설을 확보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는 지난 7월 신안성변전소와 용인 일반산단을 연결하는 전력선 공사를 마쳐 1·2기 공장에 필요한 2.83GW 규모의 공급 기반을 확보했다. 다만 3·4기 공장에 필요한 전력은 신규 송전망을 통해 공급할 계획으로 후속 시설의 건설 일정이 중요해졌다.

◆ 도로·송전망 함께 건설…공기 절반 단축

송전망 건설 기간을 줄이기 위한 대표적인 사례는 도로 확장공사와 지하 전력망 설치를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경기도와 한전은 지난 1월 SK하이닉스 용인 일반산단에 추가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지방도 318호선 확장공사와 지하 송전시설 설치를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 이천시 설성면에서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까지 27.02㎞ 구간의 도로를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면서 지하에 전력망을 설치하는 방식이다.

두 기관은 도로와 송전망을 별도로 건설할 때 발생하는 토지 확보와 굴착공사 등의 중복 절차를 줄일 방침이다. 경기도는 공동건설과 설계·시공 일괄입찰을 통해 사업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공사비도 2000억원 이상 절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신규 송전망 건설과 함께 기존 시설의 공급 능력을 높이는 방안도 대안으로 꼽힌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기온과 풍속에 따라 송전선로의 공급량을 조정하거나 기존 전선을 고성능 제품으로 교체하면 추가 공급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용인 산단에 적용하려면 기존 선로의 여유 용량과 전력계통의 안정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공사 일정에 영향을 미치는 장비 조달 기간도 단축 과제다. IEA에 따르면 송전용 케이블 확보에는 2년~3년, 대형 전력용 변압기는 최대 4년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후속 공장의 전력 사용 시점에 맞춰 설계와 장비 발주를 병행하는 방안이 공사 지연을 줄일 대안으로 거론된다.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주민반발
정부,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인허가 특례, 주민 지원 근거 마련

◆ 주민 반발에 송전망 건설 차질…인허가 개선 관건

전력망 확충 과정에서는 주민 협의와 인허가 절차도 주요 변수로 꼽힌다. 장거리 송전선로는 여러 지역을 통과하는 만큼 노선 선정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면 사업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전력 공급과 관련된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도 지난 4월 주민 반발과 일부 입지선정위원의 불참으로 노선 심의가 무산됐다. 이후 한전 자체 위원회가 선정 절차를 이어받았으며 최종 노선 확정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통해 주요 송전시설의 인허가 특례와 주민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달에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2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실제 해외에서는 관계기관의 인허가를 통합 관리하는 방식으로 행정 절차를 단축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는 2024년 송전사업의 환경 검토와 연방 인허가를 통합 조정하는 제도(CITAP)를 도입했다. 적용 대상 사업의 연방 인허가를 2년 안에 마치는 것이 목표이며 사업 초기부터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국내서도 사업 초기부터 송전선로 노선별 대안과 지중화 가능성, 보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관계기관의 인허가 절차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민 갈등으로 인한 지연을 줄이면서 반도체 공장 건설 일정에 맞춰 송전망을 확충하기 위해서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반도체 전공정에 필요한 전력과 공업용수, 전문인력 등 기반시설을 단기간에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5년~10년을 내다보는 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❶ SK하이닉스 용인클러스터 전경 사진. ❷ 지난 1월 김동철 한전 사장(오른쪽)이 김동연 경기지사와 도로·전력 동시 건설 협약을 체결했다. ❸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전국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인근에서 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백지화를 촉구하며 삼성전자 서초사옥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한국전력·뉴시스

SK하이닉스, 완공 12년 앞당겨… 내부 발전소·외부 송전망 맞물려야

2033년까지 네 번째 공장 클린룸 완공
AI 시장 확대 따른 HBM 수요 대응
1·2기 공장에 필요한 전력·용수 충분
후속 공장 건설 땐 추가 확보 필요

SK하이닉스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공장 건설 일정을 12년 앞당기면서 후속 생산시설에 필요한 송전망 확보가 과제로 남았다. 1·2기 공장에 필요한 전력시설은 대부분 갖춰졌으나 3·4기 공장에 전력을 공급하려면 송전망을 추가로 건설해야 하는 만큼 공장 건설과 전력 공급 일정을 맞추는 것이 관건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에 조성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네 번째 공장 첫 클린룸을 2033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당초 목표였던 2045년보다 12년 앞당긴 것으로, 인공지능(AI) 시장 확대에 따른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차세대 메모리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SK하이닉스는 지난 6월 용인 클러스터에 총 600조원을 단계적으로 투자하는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네 번째 공장의 첫 클린룸을 2033년까지 완공하되 나머지 생산시설 구축과 장비 도입은 이후에도 이어갈 예정이다.

우선 지난해 2월 착공한 1기 공장은 내년 2월 첫 클린룸을 개방할 계획이다. 당초 목표보다 3개월 앞당긴 일정으로 나머지 5개 클린룸은 2030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구축해 HBM을 비롯한 차세대 D램 생산에 활용할 예정이다. 올해 초 추가 투자를 결정하면서 1기 공장 건설비를 총 31조원 규모로 확대했다.

2기 공장에도 대규모 투자가 이뤄진다. 지난 8월 이사회에서 건설비 35조 2246억원을 확정했으며, 내년 7월 착공해 2029년 6월 첫 클린룸을 개방할 계획이다. 투자금은 2031년 10월까지 단계적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이처럼 초기 공장 건설 일정이 구체화된 가운데 전력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도 상당 부분 갖춰졌다. 지난 7월 신안성변전소와 용인 일반산업단지 내 동용인변전소를 연결하는 송전선로가 준공됐으며, SK하이닉스가 8월 공개한 자료에서도 1·2기 공장에 필요한 전력·용수 기반시설의 공정률이 당시 99%로 집계됐다.

1·2기 공장 가동에 필요한 초기 전력 공급 규모는 2.83기가와트(GW)로 알려졌다. 다만 용인 일반산단 전체 전력 수요는 약 6GW에 달해 3·4기 공장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려면 송전시설을 추가로 구축해야 한다.

한국전력은 SK하이닉스와 용인 일반산단 전체 전력 수요인 6GW에 대한 공급 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그러나 협약 체결만으로 실제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후속 공장에 필요한 송전선로와 변전시설을 건설해야 한다.

정부도 지난 8월 용인 일반산단의 추가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31년과 2032년에 송전선로를 구축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산단 인근 전력망을 보강하고 동해안에서 생산한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3·4기 공장에 필요한 전력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후속 송전시설의 준공 시점은 공장 건설 일정과도 맞물려 있다. 네 번째 공장의 첫 클린룸 완공 목표가 2033년으로 앞당겨진 만큼 신규 송전망 건설이 지연되면 후속 생산시설의 가동 준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 조감도. /SK하이닉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9일 경기도 용인 일반산단을 방문해 SK하이닉스의 용인 1호팹 구축현장과 트리니티팹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왼쪽은 곽노정 SK하이닉스 CEO. /산업부

외부 송전망과 별도로 산업단지 내부에 발전시설을 건설하는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E&S와 한국중부발전은 합작법인을 통해 용인 일반산단에 1050메가와트(MW)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열병합발전소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 발전소는 전기와 함께 반도체 생산시설에 필요한 열에너지도 공급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산단 내 발전소만으로 전체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는 어려워 외부 송전망 확충도 필요하다. 특히 3·4기 공장은 관계기관과 추가 협의가 남아 있어 전력시설 구축 일정에 따라 후속 생산시설의 가동 시점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생산시설 건설을 맡은 SK에코플랜트의 공사 진행 상황도 향후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SK에코플랜트는 용인 클러스터의 반도체 생산시설과 지원시설 설계·시공을 담당하고 있다. 다만 공장 건설과 전력 공급 시점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관계기관과 일정 조율이 필요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1·2기 공장에 필요한 전력 기반시설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3·4기 공장은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태"라며 "공장을 정상적으로 가동하려면 송전망이 먼저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Shinhan

더 나은 금융
더 넓은 가능성

새로운 금융의 길에 도전하고
세계로 무대를 넓혀가는 이유

고객님이 더 쉽고 편하게
폭넓은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신한은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손해보험
증권
인도네시아
카드
미국
베트남
은행
일본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 신한캐피탈 신한자산운용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신한자산신탁 신한 DS 신한펀드파트너스 신한리츠운용 신한벤처투자 신한EZ손해보험

신한금융그룹

공소청 국감 달군 李 공소취소 공방… 檢 대행 "지시 없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
野 "대통령 공소취소 사전 작업인가"
與 "야당 공소취소 주장 근거 빈약"
중수청·공소청장 국무회의 배석 논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 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법사위원들이 언쟁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22일 검찰청 폐지 후 열린 첫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공소 취소를 두고 여야 의원이 상반된 주장을 펴며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질의했다. 이 직무대행은 이 대통령 관련 공소취소를 검토한 적도 없고,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 등에서 이에 개입해 종용한 바도 없다고 답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공소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찰인권존중 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에서 조사를 해보라고 한 사건 중에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 있다"며 "그런데 이 대통령 사건 중에 항소심에 가 있는 사건들은 진상조사단 대상이 아니다. 딱 1심에 있는 것들만 문제로 삼고 있다. 공소취소 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이 대행에게 물었다. 이 대행은 "검토한 바도 없고 다른 의도가 일절 개입돼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곽 의원은 "조사단이 (이 대통령 관련) 위례신도시 사건,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검찰 미래위에 보고했다고 하는데 보고 한 것은 맞나"라고 하자 이 대행은 "맞다"고 했다. 곽 의원은 "조사단에서 각 검찰청에 수사 기록을 받아서 열람하고 수사팀에 서면 질의를 보내서 답변받는다고 하는데, 지금 이 사건들이 재판 중인 사건들"이라며 "아주 옛날에 끝난 사건들이 아니다. 위례신도시 사건이 대통령이 피고인인데, (대통령 당선으로) 재판이 중단됐다.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은 1심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수사 기록을 다시 열람하면서 서면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는 것은 불법적인 활동"이라고 부연했다.

곽 의원은 국무회의에 중수청장과 공소청장 직무대행이 배석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했다. 그는 "국무회의는 정부의 최고 정책 심의 기관이다. 형사정책 논의가 필요하면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이 참석해서 하면 된다"며 "구체적인 형사 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해야 하는 공소청, 중수청, 경찰청 책임자가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헌법이 예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있는데 공소취소를 종용하는 말까지 했다.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잘못하면 사과를 하면 되지, 취소를 왜 하나"라며 "(결국) 공소취소 하라는 이야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대행에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사건을 지휘하거나 방향을 정하나"라고 물었다. 이 대행은 "제가 참석한 자리에서 단 한 차례도 그런 전례가 없다. 구자현 전 대행 참석 때도 구체적 사건 관련해서 언급했던 적은 없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신임 청장 대행과 오찬도 한 것 같은데, 그 자리엔 카메라가 없으니 특정 사건을 두고 (대통령이 공소 취소하라고 했나"라고 묻자 이 대행은 "그런 적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만에 하나 그런 요청을 한다면 응할 것인가"라며 "흑이 백이 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원칙과 근거에 따라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들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 필요하면 개별적으로 불러서 할 수도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이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적은 없다. 그러면 그 때 검찰 독립이 이뤄졌나.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이 불거졌을 때 어떻게 됐나. 12일 만에 중앙지검장하고 차장검사 4명이 바뀌었고, 새 지휘부는 명품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다 덮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반복해서 대통령이나 법무부로부터 이 대통령 사건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 관련 공소 취소 지시를 받았냐고 묻자 이 대행은 "검토한 바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렸다", "공소 취소의 '공'자도 꺼내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사건이 공소 취소 대상이 1심 중인 재판에 한정적이고 공소 취소가 된다 하더라도,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다시 기소할 수 있기 때문에 야당이 제기하는 주장은 근거가 빈약하다고 평가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국민연금 평가액 182조 급감에 '책임론'

민주 "단기 수익률로 평가해선 안 돼"
국힘, 선거 전 증시 부양 의혹 제기

최근 국내 증시가 폭락하면서 국민연금이 약 100일만에 약 182조원 가량의 역대 최고 수준의 손실액을 기록한 것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이 1~7월까지 전세계 연기금 중 최고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6·3 지방선거 전 증시 부양을 위해 국민연금을 이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4월1일부터 7월6일까지 반도체 주식 호황 등에 힘입어 보유 주식 평가액이 189조원의 수익을 기록했으나, 6월30일부터 10월15일까지 보유 주식 평가액은 총 333조5330억원으로 석달 반만에 182조3963억원이 증발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최근 국민연금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이 난무하며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연기금 카지노, 선거용 주가 부양 등 막말을 쏟아내며 특검을 비롯해 대통령 탄핵까지 운운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당장 정치 선동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의 운용 원칙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며 "단기 투자처럼 고점에 팔고 저점에 사는 식의 투자 행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국민연금) 182조원 손실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이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일부 상장사 주식의 평가액 변화로 기금 전체 운용 손실과는 다르다"고 부연했다. 그는 "오히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국민연금 기금 누적 운용 수익률은 14.84% 세계 연기금 중 최고 수익률을 기록했다"며 덧붙였다.

권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주식 매도를 막았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 지난 1월 기금운용위원회가 리밸런싱(자산 비중 재조정)을 한시적으로 유예한 것은 투자 비중을 조정한 조치"라며 "당시 국내 증시 급등으로 2월 말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이 24.5%까지 커진 상태였다. 기존 기준대로 국내 주식을 팔았다면, 대규모 매도 압박과 시장 충격이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량 손실로 기금 고갈이 앞당겨졌다란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2023년 추계 기금 소진 연도도 2055년이며, 지난해 추계 소진 2064년이었다"며 "추계에서 예측한 기금 수익률은 4.5%로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장기 예측한 것이기에 단기 수익률 변동으로 기금 소진 시기를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기금이다. 단기 투자가 아니라 장기 수익성과 안정성을 중심에 두고 가입자의 이익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야말로 국민의 노후 자금을 투기성 자금으로 매도하고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연금을 증시 부양에 동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조사와 특검(특별검사)을 실시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태홍·박경수 기자



李 대통령, 익산 초등학생들과 체육한마당에서 학생들과 함께 '볼풀공 채우기'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전북 익산 왕궁초등학교에서 열린 가을 행복학교 체육한마당 /뉴시스

李 "잠재성장률 반등, 질적 성장 이어져야"

"대·중기 상생 산업생태계 구축"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모처럼의 잠재성장률 반등이 국민 경제의 질적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년 연속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이를 마중물로 삼아 국가 전체의 성과로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50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년 연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실질성장률 3% 돌파와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아진 가운데 국제통화기금이 우리 잠재성장률이 2년 연속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했다"며 "고도성장기였던 1980년대 중반 이후 4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흐름을 더 크게, 지속 가능하게 균형 잡힌 성장으로 나아가는 마중물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회복이 더딘 부문에 재정과 정책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현재 산업구조의 변화로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청년의 일자리 통로는 좁아지고 수출과 내수 간의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확보된 재정 여력을 청년 일자리 확대와 주택 공급, 국내 소비 활성화 등에 필요한 만큼 충분하게 투입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줄여 잠재성장률 반등을 국민 경제의 질적 개선으로 이어가게 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성장의 과실이 대기업에만 집중되면 양극화 심화로 국가의 성장 잠재력이 훼손된다면서 "특히 전체 일자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소외되는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서예진 기자 syj@

오세훈 정치자금법 항소심, 오늘 결론

2심 판결서 시장직 상실 여부 주목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항소심 선고가 23일 예정된 가운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 위기에 몰린 오 시장이 이번엔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3일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번 선고를 실시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조사 비용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오 시장 측이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았으며, 김씨가 약 3300만원의 비용을 대납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포함된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에 대해 오 시장 측의 조사 의뢰와 김씨의 비용 대납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선출직 공직자는 직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잃게 된다. 다만 이번에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더라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서예진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모두를 위한 하나의 금융이 내일을 위한 행복의 기회로

누구나 더 밝은 내일을 그려가도록 하나금융그룹이 포용금융으로 힘을 더합니다



하나금융그룹은 누구나 필요한 금융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금융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모두의 금융권리를 넓혀갑니다

- 청년 및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 채무자보호 및 범죄예방
- 지속가능한 포용금융 내재화

✦ 해당 제작물은 생성형AI를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건강보장 상품 등 수익전략 강화… 신계약 CSM 1조 초읽기

〈보험계약마진〉

NH농협생명

신계약 CSM 연간목표의 85% 확보
상반기 총 6019억, 전년비 82%↑
보험손익 42%↓, 투자손익 적자
상반기 순이익 351억, 77% 감소
계약유지·비용관리 과제로 남아



NH농협생명 사옥. /NH농협생명

NH농협생명이 올해 신계약 보험계약마진(CSM) 1조원 목표에 다가서는 등 미래 수익 기반을 넓히고 있다. 지난 9월까지 연간 목표의 85%를 확보했지만, 상반기에는 보험·투자손익 악화로 순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신계약 성장과 함께 보유계약의 수익 실현을 뒷받침할 계약 유지와 비용 관리가 과제로 남았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NH농협생명은 올해 신계약 CSM 1조원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건강보장 상품을 확대하고 수익성 중심의 상품 전략을 강화하면서 9월까지 약 8500억원의 신계약 CSM을 확보했다.

◆ **보장성 확대로 미래이익 축적**

신계약 확대는 상반기부터 뚜렷했다. 상반기 신계약 CSM은 6019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82.2% 증가했다. 새로 체결한 계약에서 앞으로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하는 이익의 기반이 커진 셈이다.

CSM은 보험계약에서 예상되는 미래 이익 중 아직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은 금액이다.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에 걸쳐 나눠서 수익으로 반영된다.

NH농협생명은 상반기에 보유CSM 중 2035억원을 상각해 수익으로 인식했다. 보험손익은 이 수익과 함께 실제 보험금·사업비와 예상치의 차이, 손실계약비용 등 여러 항목을 반영해 결정된다.

NH농협생명은 경영공시에서 상품판매 전에 보험위험 요인을 점검한다며 "수익성 지표 및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적정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보유계약에서는 연금·저축 비중이 높다. 6월 말 경영공시에서 원수·수재계약의 '잔여보장요소'를 합산하면 연금·저축이 27조3401억원으로 66.3%를 차지했다. 잔여보장요소는 앞으로 제공할 보험서비스에 대응하는 금액이다. 최근 보장성 상품을 강화하는 판매 전략과 누적된 보유계약의 구성을 함께 보여주는 대목이다.

계약 관리에서는 상반기 25회차 계약유지율이 88.07%로 전년 동기보다 7.30%포인트(p) 높아졌다. 다만 61회차는 하락해 회차별로 차이를 보였다. 신계약에서 예상한 수익을 실현하려면 계약이 지속되고 보험금·사업비 등 비용 요인이 안정적으로 관리돼야 한다.

◆ **상반기 보험·투자손익 약화**

상반기 손익에서는 비용 증가의 영향이 두드러졌다. 공시에 첨부된 일반회계 재무제표 기준으로 상반기 순이익은 351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77.3% 감소했다. 보험손익은 1163억원으로 41.9% 줄었고, 투자손익은 지난해 상반기 635억원 흑자에서 올해 약 43억원 적자로 전환했다.

보험수익이 증가했지만 보험서비스비용은 전년 동기보다 1184억원 늘어나 본업 이익을 압박했다. NH농협생명은 7월 상반기 실적 발표 당시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 적용에 따른 손실계약비용 증가와 사업비 가정 변경 등이 보험손익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신규담보와 실손보험을 제외한 갱신형 상품의 손해율 가정을 강화하고, 사업비 가정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했다. 장래 보험금과 사업비를 추정하는 기준이 엄격해진 것.

투자 부문에서는 보험부채와 관련한 보험금융비용이 전년 동기보다 약 395억원 늘어난 7801억원을 기록했다. 이자수익이 소폭 증가했지만 보험금융비용 등 투자비용 부담을 상쇄하지 못하면서 최종 투자손익은 악화됐다.

자본비율에는 보험부채 평가액 감소의 효과가 반영됐다. 6월 말 지급여력비율(K-ICS)은 경과조치 전 217.41%, 후 396.39%로 전분기보다 높아졌으나 지난해 말에는 못 미쳤다. NH농협생명은 장기채 금리 상승으로 보험부채의 평가금액이 자산보다 더 크게 줄면서 순자산이 늘었다고 공시했다.

신계약CSM 확대는 NH농협생명의 미래 수익 기반을 키운 성과다. 이를 이익 회복으로 연결하려면 계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보험금·사업비와 금융비용 부담을 관리하는 과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박병희 NH농협생명 대표는 지난 7일 '신계약CSM 1조 추진 선포식'에서 "올해를 미래 수익 중심의 내실 경영을 본격화하는 원년으로 삼아 신계약CSM 1조원을 달성하고,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대출금리 편법 인상, 민생과 직결… 감독지침 마련·대응"

금융위·금감원 2026 국감
"퇴임 임원, 자리옮겨 막대한 보수
**'옥상옥 지배구조' 제도개선 할 것"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2일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참여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편법적 금리 인상을 규율하기 위한 지침을 논의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대출 금리의 편법적 인상은) 은행 건전성과 별개로 민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이라고 판단한다"라며 "(관련 내용을) 은행업권 감독 시 우선도가 높은 감독 항목으로 지정해서 감독하겠다"라고 말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은행권의 편법적 금리 인상을 지적했다. 지난 7월부터 개정 은행법에 따라 은행권의 대출금리 산정 시 서금원 출연금을 비롯한 법정금리의 반영이 금지됐지만, 은행권에서는 가산금리를 올리고 우대금리를 낮춰 고객 부담을 늘리는 '편법 행위'를 지속하고 있어서다.

민병덕 의원은 "은행권은 가산금리를 높이고 우대금리도 축소하면서 은행몫의 이득을 늘려가고 있는데, 정작 은행장들은 금리가 어떻게 책정됐는지 모른다고 주장한다"라며 "은행법이 개정되고 해당 방안이 실시된 지 3개월이 지났는데, 이제서야 문제를 파악하는 것은 감독당국의 실기가 발생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편법적 금리 인상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기준을 마련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은행법 개정안이 당초 기준금리 변동 시 금리의 자동조정을 전제로 설계됐던 만큼, 대출 이자 산정 시 가산금리를 의도적으로 높이는 편법 행위에 대응하겠다는 것.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감원과 현 상황을 파악하고 (은행권의 편법 행위에)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금융권의 '옥상옥 지배구조'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금융지주사 임원들이 퇴임 이후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인 산하연구소 임원이나 자문 등으로 부임하면서 막대한 보수를 받아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용만 민주당 의원은 "각 금융지주사 자료를 분석해보니 지주 임원에서 퇴임하고 계열사나 연구소로 자리를 옮긴 인원이 수도없이 많다"라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상 법률상 임원이 아닌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보수까지 받아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경영진이 고이다 못해 썩은 물이 되는 '이너서클' 문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일부 금융회사는 없던 자리까지 만들어 수억원에 달하는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 금융업 특성상 퇴임임원에 대한 예우는 결국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다"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지배구조 개선안에 '옥상옥 지배구조'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배구조 개선 조치가 사각지대에 놓인 고문·자문 제도까지 미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에서 준비 중인 지배구조 개편안에 그림자 임원 관련 내용을 협의·보완하고 있으며, 실무 논의 마지막 단계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금융기관들이 인터넷뱅킹 이용 시 의무 설치를 요구하는 보안 프로그램이 해커들의 공격 통로가 되는 '보안 취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손명수 민주당 의원은 "19개 은행 중 9곳이 여전히 보안 프로그램을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주요 보안 프로그램 및 관련 서버에서 수십 건의 취약점이 발견되고 있다"라며 "보안 프로그램을 무작정 늘리는 방식이 오히려 해킹 루트를 늘려주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서울 신촌역 인근에 49층, 383가구 조성

서울시, 마포4구역 9지구 계획 변경

서울 신촌역 인근 노후 건축물 밀집 지역에 최고 49층, 383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기존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 중심에서 가족 단위 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평형으로 공급계획을 조정하고, 신촌역 환경개선과 청소년 복지시설 조성도 함께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마포구 노고산동 106-9 일대 '신촌지역 마포4구역 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지는 신촌역 인근에 위치한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 지역이다. 서울시는 훼손된 도시 경관을 정비하고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주거시설 공급과 기반시설 개선을 포함한 정비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안에 따라 용적률은 1120%, 건축물 높이는 170m 이하로 조정된다. 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383가구가 공급되며 근린생활시설과 청소년 복지시설도 함께 들어선다.

주택 평형 구성도 다양해진다. 기존에는 1인 가구 중심의 전용면적 49㎡ 소형 주택 위주로 계획됐지만, 이번 변경안에는 가족 단위 주거 수요를 고려해 전용 59㎡와 84㎡ 이상 주택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도심 내 주거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신촌역의 노후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기여도 이뤄진다. 사업을 통해 약 73억원을 공공기여해 신촌역사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쾌적한 지하철 이용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건축물 지상 2~3층에는 연면적 약 1662㎡ 규모의 마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들어선다. 청소년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는 복지·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lhj@

삼성카드 '연회비 100만원' 메리어트 카드

플래티넘 등급 최단기간 획득

"메리어트 카드 중에서 고객들이 가장 원하는 메리어트 플래티넘 티어(등급)를 최단시간에 가장 낮은 이용 금액으로 제공하는 상품이 탄생했습니다."

김대순 삼성카드 부사장은 22일 서울 강남구 엔헤이븐에서 '메리어트 본보이 더 프레스티지 삼성카드' 출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신규 카드는 삼성카드가 글로벌 호텔 체인 '메리어트 인터내셔널'과 손잡고 프리미엄 고객을 타깃으로 출시한 상품이다. 연회비는 100만원이다.

카드 핵심은 메리어트 플래티넘 등급으로의 빠른 승격과 발급 시 제공되는 숙박권의 폭넓은 활용이다.

김숙자 삼성카드 마케팅 담당은 "고객이 진짜 원하는 것은 두 가지다. 첫째, 플래티넘 등급을 보다 쉽고 빠르게 획득하는 것과 두 번째는 발급 시 제공되는 숙박권을 폭넓게 사용하는 것"이라며 "이 두 가지를 이번 상품에 집중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카드 발급과 동시에 메리어트 본보이 골드 엘리트 등급이 부여된다. 발급 첫해 누적 이용 금액 1200만원 이상, 2차 연도 이후 전년도 이용 금액 2400만원 이상 이용 시 플래티넘 엘리트 등급으로 업그레이드된다.

김 부사장은 "가까운 일본의 경우 플래티넘 등급을 획득하려면 연간 약 4500만원을 사용해야 한다"며 "반면, 저희는 기준 금액을 1년 차 1200만원, 2년 차 2400만원으로 낮춰 고객들이 최상의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플래티넘 엘리트 회원에게는 50% 메리어트 보너스 포인트 적립, 2인 조식 서비스, 상위 객실 업그레이드, 라운지 이용, 오후 4시 레이트 체크아웃 등 메리어트 본보이의 대표적인 프리미엄 혜택이 부여된다.

삼성카드는 출시 첫해 9000매, 출시 3년 내 2만매 이상 발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방산업계, 경쟁체제 흔들리나 '입찰제한·사업협력' 수주 변수

LIG D&A, 24개월 입찰참가제한
한화에어로, 추가수주 가능성 거론
"신뢰 저하, 업계 전반 부담될 수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내 방산시장에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주도권을 강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쟁사인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의 입찰 제재로 추가 수주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자체 사업장 사고 수사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 참여를 둘러싼 논란도 사업 확대의 변수로 남아 있다.

22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LIG D&A에 대한 24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으로 연말 계약을 앞둔 KF-21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사업의 경쟁 구도에 관심이 쏠린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 사업의 기체구조·추진기관 분야 제안서 평가에서 1순위에 올랐으며, 체계종합에서는 LIG D&A에 이은 2순위다.

LIG D&A가 계약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면 한화의 체계종합 추가 확보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경우 한화는 이번 사업에서 구성품 개발에 더해 유도탄 설계·조립과 구성품 통합, 시험평가까지 역할을 넓힐 수 있다.

KF-21 유도탄을 넘어 국내 신규 수주전에서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LIG D&A의 입찰 제한이 장기화하면 사업 영역이 겹치는 유도무기 분야에서 한화가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LIG D&A가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한 만큼 실제 수혜 여부는 법원의 판단과 사업별 계약 절차에 달려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의 KF-21 통합을 위해 협력해온 KAI와의 관계도 주목된다. 양사는 올해 KF-21·FA-50 무장 통합과 수출 공동 마케팅에 합의한 데 이어 지난달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통합 협력을 강화했다. 한화의 무장 개발 역량과 KAI의 항공기 개발 역량을 연계해 전투기와 무장을 묶은 수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러한 사업 협력이 한화의 KAI 경영 참여로 이어지는 데는 제약이 남아 있다. 한화그룹은 KAI 지분 15.89%를 보유한 2대 주주지만, 최대 주주인 한국수출입은행은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 현재 지분 매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KAI 경영진도 경쟁 제한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종출 KAI 사장은 국감에서 한화가 경영권을 확보하면 항공우주산업의 경쟁체제와 생태계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화의 이사회 진입 역시 당장 현실화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내놨다. 지분 확보를 넘어 경영에 참여하려는 한화로서는 최대주주의 판단과 경쟁 제한 우려가 과제로 남아 있다.

한화 자체의 사고 수사도 변수다. 지난 6월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로 근로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으며, 당시 대표이사였던 손재일 전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한화 역시 안전관리 책임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어 경쟁사 제재에 따른 반사이익과 별개로 사고 후속 대응과 신뢰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 사업에서는 한화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한화 역시 사고 수사를 받고 있어 경쟁사 제재를 수주 기회로만 보기는 어렵다"며 "국내 방산기업들은 해외 사업에서 부체계 공급사나 협력사로 함께 참여하는 만큼 비리와 사고에 따른 신뢰도 저하가 K방산 전반의 수주 경쟁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한국수자원공사 이성훈 시화조력관리단 부장(왼쪽부터), 곽희진 시화조력관리단장, 오봉근 재생에너지본부장, LG전자 이승기 스마트팩토리솔루션센터장 전무, 윤대식 대외협력담당 전무, 장선욱 스마트팩토리솔루션센터 연구위원이 22일 경기도 안산시 시화조력문화관에서 시화호 AI 조력발전소 추진을 위한 기술 협력 MOU를 체결하고 있다. /LG전자

LG전자, 스마트팩토리 사업 외연 확장

한수원과 AI 조력발전소 추진 협약

LG전자가 인공지능(AI) 기반 차세대 조력발전소 구축에 나서며 스마트팩토리 사업의 외연을 에너지 인프라 분야로 확대한다. 전자·전장·배터리 제조 현장에서 축적한 자동화·AI 기술을 발전소 운영에 접목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기업간거래(B2B) 사업의 성장 동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LG전자는 22일 경기도 안산시 시화조력문화관에서 한국수자원공사와 '시화호 AI 조력발전소 추진을 위한 기술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디지털트윈과 AI, 로봇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시화조력발전소의 운영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

이번 협력의 핵심은 제조 현장에서 검증한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을 에너지 인프라에 적용하는 것이다. LG전자는 디지털트윈 기반 통합 운영체계를 구축해 발전설비와 폐쇄회로(CC)TV 등의 실시간 데이터를 연계하고 발전량 예측과 설비 상태 진단, 운영 시나리오 검증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LG전자는 LG AI연구원의 초거대 AI 모델 엑사원(EXAONE)을 활용한 발전소 특화 AI 에이전트 도입도 검토한다. 발전량 손실 원인 분석과 설비 이상 징후 탐지, 예지보전, 점검 일정 최적화 등을 통해 운영 효율을 높이는 방식이다. 순찰 로봇과 AI CCTV를 활용한 시설 점검 및 위험구역 모니터링, 산업용 로봇을 통한 부품 관리와 자재 운반 자동화도 추진한다.

LG전자가 이번 협력에 나선 것은 스마트팩토리 사업의 적용 범위를 제조업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산업의 운영 혁신을 지원하는 솔루션 사업으로 키우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특히 발전소는 설비 상태와 외부 환경에 대한 실시간 분석, 안정적인 운영 및 유지보수가 중요한 분야다. LG전자가 보유한 자동화·AI·디지털트윈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이 넓은 만큼 이번 협력은 제조 현장에서 쌓은 기술력을 비제조 산업으로 확장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양성운 기자

신형 투싼 사전계약 첫날 1.5만대 '흥행'

현대차 편의사양 등 상품성 대폭 개선
하이브리드·최상위 트림 수요 집중

현대자동차의 5세대 완전변경 모델 '디 올 뉴 투싼'이 계약 개시 첫날 1만5000대가 넘는 주문을 확보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이전 세대 모델의 첫날 계약 기록을 6년 만에 갈아치운 가운데 하이브리드와 최상위 트림에 수요가 집중되면서 준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시장에서 상품성 경쟁력을 입증했다는 평가다.

현대차는 디 올 뉴 투싼이 계약 첫날인 21일 총 1만5045대의 계약을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2020년 9월 출시된 4세대 투싼의 첫날 계약 실적 1만842대보다 38.8% 증가한 수치로 계약 대수 기준으로 4203대 늘어나며 역대 최다 계약 기록을 새로 썼다.

이번 흥행은 디자인과 공간성 개선에 더해 안전·편의사양과 디지털 경험을 강화한 점이 주효했다. 특히 기본 트림부터 고객 선호 사양을 대거 적용하고 상위 트림에는 첨단 기술을 확대해 가격 대비 상품성을 높인 전략이 초기 수요를 끌어낸 것으로 분석된다.



현대차 5세대 디 올 뉴 투싼. /양성운 기자

신형 투싼은 트림별로 최상위 모델인 인스퍼레이션의 선택 비중이 44%로 가장 높았으며, 기본 트림인 H-Pick은 33%, 중간 트림인 익스클루시브가 22%, 익스클루시브를 기반으로 전용 디자인을 적용한 XRT 트림이 1%를 기록했다. 고급 사양을 선호하는 수요와 합리적인 가격을 중시하는 수요가 동시에 나타났다.

파워트레인별로는 하이브리드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하이브리드 선택 비중은 55%로 기존 투싼의 48%보다 7%포인트 높아졌다. 가솔린 모델을 넘어선 것으로, 연료 효율과 주행 성능을 함께 중시하는 소비자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가솔린 모델 역시 최고출력을 13마력 높이고 8단 자동변속기를 적용해 주행 성능을 개선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디 올 뉴 투싼은 강인한 디자인과 넓은 공간성을 바탕으로 기본 트림부터 높은 상품성을 갖춘 매력적인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을 최우선으로 두고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포스코퓨처엠, 팔란티어 '파운드리·AIP' 도입

고객사-공급사 협력체계 강화

포스코퓨처엠이 인공지능(AI)을 접목해 업무 생산성과 고객 대응 역량을 높이고, 제조 부문까지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

포스코퓨처엠은 21일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팔란티어와 데이터 분석 및 AI 플랫폼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도입 대상은 데이터 운영·분석 플랫폼 '파운드리(Foundry)'와 AI 플랫폼 'AIP(Artificial Intelligence Platform)'다. 팔란티어는 기업과 기관에 흩어진 데이터를 통합해 업무 운영과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파운드리는 데이터 통합·분석을, AIP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업무 자동화와 AI 에이전트 운용을 지원한다.

포스코퓨처엠은 영업·마케팅 분야에 두 플랫폼을 우선 도입한다. 고객 관련 업무와 조직 간 정보 공유를 개선하고, 운영 성과를 확인한 뒤 생산과 전사 업무로 적용 대상을 넓힐 예정이다.

이번 도입은 고객사와 공급사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이차전지 소재의 기술 경쟁력뿐 아니라 산업 내 협업 역량을 높여 사업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회사는 팔란티어 플랫폼을 통해 부서별 데이터를 연계하고 분석 결과를 업무에 반영할 계획이다. AI가 계획 수립과 실행 과정을 지원하고 임직원이 최종 의사결정을 맡는 'AI 네이티브' 업무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유혜온 기자 dhaledhale@

마이크론 대만 공장 파업… K-반도체기업 반사이익 가능성

생산차질 현실화시 가격 협상력 영향

대만 반도체 업계에서 사상 첫 파업이 발생하면서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공급망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마이크론의 대만 D램 생산거점에서 성과급 갈등으로 파업이 시작된 가운데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관측도 따른다.

22일 대만 중앙통신사 등 외신에 따르면 마이크론 대만 타오위안 공장 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9시부터 23일 오전 9시까지 24시간 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파업은 대만 반도체 산업 역사상 첫 사례로, 노사 간 성과급 지급 방식을 둘러싼 이견이 원인이다.

이번 파업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인공지능(AI) 서버용 메모리 수요 증가로 글로벌 D램 공급이 빠듯한 상황에서 마이크론의 생산 차질이 현실화할 경우 국내 메모리 업체들의 가격 협상력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파업이 하루 동안 진행되는 경고성 조치인 데다 HBM 핵심 생산거점인 타이중 공장은 노사 합의에 성공한 만큼 당장 글로벌 메모리 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노사 협상 결과에 따라 파업이 장기화하고 실제 생산 차질로 이어질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사이익을 가를 변수로 꼽힌다.

/차현정 기자 hyeon@

삼성월렛 머니·포인트 가입자 300만명 돌파

삼성전자 서비스 1주년… 기능 추가

삼성전자는 삼성월렛 머니·포인트 가입자가 출시 1주년을 맞아 300만명을 돌파했다고 22일 밝혔다.

삼성월렛 머니·포인트는 삼성 월렛에 탑재된 충전식 간편결제 서비스다. 지난해 10월 출시된 뒤 두달 만에 가입자 100만명을 확보했고, 이후 1년 만에 300만명까지 늘었다.

삼성전자는 전월 이용 실적이나 적립한도 없이 포인트를 받을 수 있고 국내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성장 배경으로 꼽았다. 결제하면서 적립한 포인트를 별도 제한 없이 다음 결제 때 바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서비스 출시 1주년을 맞아 지난 20일부터 포인트 등급제와 해외 결제 지원 등 신규 기능을 순차적으로 추가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김기문 "차기 중기중앙회장, 일 잘하고 화합할 사람 뽑아야"

〈중소기업중앙회장〉

제주 中企 리더스포럼서 간담회
"경영 성과·성품 등 냉정하게 평가"
차기 회장 후보 5명 출마 의사 밝혀
내년 2월2일 선거… 운동 기간 확대
16년 회장직 마무리, 재도전 일축



김기문 회장이 제주 롯데호텔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자신을 이을 차기 주자로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기문 회장은 22일 중기중앙회가 제주 서귀포 롯데호텔에서 진행하고 있는 '2026년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간 중 기자들과 만나 "선거라는 것은 냉정한 심판이다. (새 회장은) 자수성가했는지, 수출을 많이 하는지, 매출은 어떤지 등을 비교할 수 있을 것이고 누구와도 화합하면서 이끌어갈 수 있는 성품도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오는 12월11일 선거공고를 통해 제28대 회장 선거전에 본격 돌입한다.

김 회장은 두 차례 연임을 통해 올해까지 총 16년(23~24대, 26~27대) 동안 중기중앙회장을 맡고 있다. 중기중앙회장은 법상 3연임은 불가능하지만 4년후엔 다시 중기중앙회장에 도전할 수 있다.

그러나 본인은 재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일축했다.

김 회장은 "놀러 올 진 몰라도, 일하러 중기중앙회에 오지 않겠다고 직원들에게 이미 말했다. (회장을 하는 동안) 너무 힘들었다, 그게 솔직한 소회"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의 임기는 내년 2월27일 밤 12시까지다.

이번 3박4일간의 리더스포럼 기간 동안 차기 회장 후보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중기중앙회장 선거에는 사전 등록이 없기 때문에 (후보자들이) 와서 선거운동을 하면 사전 선거운동으로 100% 걸린다"며 "가령 참석자와 악수 및 통화를 하거나 (숙소를)방문하면 사전 선거에 걸린다. 내가 (오지 못하도록)한 것이 아니라 이사회에서 유력 후보자들과 개별적으로 인터뷰를 갖고 포럼에 안 갔으면 어떻겠냐고 제안했고 양해가 돼 전원 불참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차기 중기중앙회장 선거에는 강동한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박장선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장, 심승일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이민형 중부흙관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재광 한국전기에너지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 여기에 더해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도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배 회장은 방송인 탁재훈(본명 배성우)씨의 부친이다.

김 회장은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선거운동 기간을 열흘 더 늘렸다"며 "선거일도 앞당겨 당선자가 취임하기 전 인수인계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차기 중기중앙회장 선거는 내년 1월1~2일 후보자 등록을 받고 1월3일부터 2월1일까지 선거운동을 통해 2월2일 투표를 통해 결정한다.

김 회장은 "(회장으로) 2007년 왔을 때와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 다만 K-자형 양극화에 대해 현 정부도 굉장히 고심하고 있지만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면서 "내년에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10개 정도의 협동조합에서 표준 데이터를 만드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들이 빠른 시간 안에 AI를 도입해야 우리나라가 AI 3대 강국으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BMW iX3, 글로벌 흥행에 물량 확보전

BMW코리아, 본사와 공급 확대 협의
유럽 주문 10만건 돌파하며 인기몰이
국내 사전 예약 3개월 만에 5000건



더 뉴 BMW iX3 정측면 모습.

BMW의 차세대 순수전기 스포츠액티비티차(SAV) '더 뉴 BMW iX3'가 글로벌 시장에서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유럽에서만 10만건 이상의 주문을 확보한 데 이어 국내에서도 사전 예약 단계부터 수요가 몰리면서 BMW코리아가 본사와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한 협의에 나섰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기반으로 상품성을 끌어올린 전략이 글로벌 시장에서 통했다는 평가다.

22일 BMW그룹에 따르면 더 뉴 BMW iX3는 지난해 9월 독일 뮌헨에서 열린 'IAA 모빌리티 2025'에서 처음 공개된 이후 유럽에서 10만건 이상의 주문을 기록했다. 공개 이후 유럽에서 접수된 BMW 순수전기차 주문 3건 중 1건이 iX3에 집중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iX3는 유럽은 물론 국내에서도 높은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월 사전 예약을 시작한 뒤 3일 만에 2000건을 돌파했으며, 3개월간 약 5000건의 예약을 기록했다. 6월 국내 공식 출시 이후 7월부터 고객 인도에 들어갔지만, 글로벌 수요까지 급증하면서 국내 공급 확대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BMW코리아 관계자는 "iX3는 BMW의 차세대 차량 프로젝트인 노이어 클라쎄를 적용한 첫 양산형 모델인 만큼 글로벌 시장에서 상품성을 인정 받은 것"이라며 "본사와 생산 물량 확대를 위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으며 한국 물량 배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BMW는 iX3 생산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헝가리 데브레첸 공장은 급증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2월 2교대 생산 체제를 도입했다. 양산 개시 이후 수개월 만에 누적 생산 5만대를 달성하며 BMW 그룹 신규 공장 가운데 가장 빠른 생산 확대 속도를 보였다.

iX3는 글로벌 시상식에서도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2026 월드 카 어워즈'에서 세계 올해의 차와 세계 올해의 전기차를 동시에 수상했으며, 영국 자동차 전문 매체들이 선정한 올해의 차에도 이름을 올렸다.

흥행의 배경에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바탕으로 한 기술 혁신이 자리 잡고 있다. 800V 고전압 시스템 기반의 6세대 BMW eDrive와 파노라믹 iDrive, 주행 역학을 통합 제어하는 '하트 오브 조이' 등을 적용해 주행 성능과 디지털 경험을 강화했다. /양성운 기자 ysw@

영풍, 고려아연 자사주 소송 1심 패소

법원, 자사주 매수 경영 판단 인정
영풍·MBK 항소로 법정 공방 지속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이사진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를 경영 판단의 재량 범위로 인정한 것. 이에 영풍이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22일 영풍이 최 회장과 고려아연 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사들이 경영 판단에 관한 재량권을 갖고 있으며, 합리적으로 정보를 수집·검토해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고 그 결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봤다. 고려아연 이사회가 영풍 측 공개매수를 경영권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법률 자문과 법원의 가처분 결정 등을 검토해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결정한 점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또 자사주 취득 재원과 관련한 영풍 측 주장도 기각했다. 특정 목적 임의준비금을 자사주 취득에 사용한 것이 상법상 취득가액 한도 규정이나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 직후 항소 방침을 밝혔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개인의 자리 보전을 위해 고려아연을 사금고화하고 막대한 채무를 떠넘긴 위법적 경영 행위가 이사의 재량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주당 89만원에 매입해 8300억원 이상의 실질적 손해를 입었고, 1조6000억원이 넘는 차입 부담까지 떠안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영풍·MBK 측의 주장으로 이번 1심에서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내용이다.

앞서 영풍은 2024년 9월 MBK파트너스와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나섰다. 이에 고려아연 이사회는 같은 해 10월 주당 89만원에 자사주 공개매수를 결정하며 맞대응했다. /양성운 기자

GM, 전동화 기술·미래 모빌리티 비전 제시

대구 미래모빌리티엑스포 5년째 참가
캐딜락 대형 전기 SUV 기술력 공개

제너럴 모터스(GM)가 대구에서 전동화 기술과 차량 개발 역량을 선보이며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제시한다.

GM은 지난 21일부터 오는 24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2026 대한민국 미래모빌리티엑스포(DIFA 2026)'에 참가한다고 22일 밝혔다.

GM은 2022년부터 5년 연속 DIFA에 참가하고 있다. 올해는 캐딜락의 플래그십 대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2026 에스컬레이드 IQ'를 전시해 전동화 기술과 프리미엄 디지털 경험을 소개한다.

전시 공간은 ▲참여형 행사를 진행하는 이벤트존 ▲차량과 관련 콘텐츠를 소개하는 차량존 ▲직무 상담과 채용 정보를 제공하는 컨설팅존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체험하는 버추얼 모빌리티존 등 4개 구역으로 구성됐다.

브라이언 맥머레이 GM테크니컬센터 코리아 사장은 지난 21일 열린 DIFA 콘퍼런스에서 기조강연자로 나서 인공지능이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미래 모빌리티의 방향을 설명했다. 기술 성능과 함께 인간의 판단·책임, 기술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는 GM의 글로벌 사업장 가운데 미국 본사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연구개발법인이다. 디자인과 엔지니어링부터 최종 차량 검증, 생산 기술까지 완성차 개발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이승혁 기자 sh95@

에쓰오일

AI로 공장 안전 강화

에쓰오일(S-OIL)이 공장 운영 데이터의 연계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한 통합 제조 운영 관리 시스템을 샤힌 공장까지 확대 적용했다. 기존 공장에서 축적한 디지털 운영 경험을 신규 설비에 접목해 안정적인 가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에쓰오일은 통합 제조 운영 관리 시스템 'S-imoms(S-OIL Integrated Manufacturing Operations Management System)'의 고도화와 샤힌 공장 확대 적용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S-imoms는 생산·설비·정비·검사·안전 등 공장 운영 전반의 시스템과 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결하는 디지털 전환 사업이다. /원관희 기자 wkh@

귀뚜라미, AI 데이터센터 냉각 기술 뽐내

국제냉난방공조전서 신기술 공개
냉동공조 3사 첨단 솔루션 선봬

귀뚜라미그룹이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는 '제18회 한국국제냉난방공조전(HARFKO 2026)'에 참가해 AI 데이터센터, 첨단 제조시설, 원자력발전소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냉난방공조 솔루션을 선보였다. 지난 21일 개막해 23일까지 사흘간 열리는 한국국제냉난방공조전은 냉난방공조 분야의 주요 제품과 기술을 소개하는 전문 전시회다. 올해는 AI와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냉난방공조 기술의 미래를 조명한다.

귀뚜라미그룹의 핵심 냉동공조 계열사인 귀뚜라미범양냉방, 신성엔지니어링, 센추리 등 3개사는 총 65부스 규모의 전시 공간을 마련해 각 사의 차별화된 기술력을 공개했다.

귀뚜라미범양냉방은 데이터센터 냉각 시스템, 냉각탑, 냉동기, 송풍기 등 4가지 테마로 전시장을 구성하고,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고효율 냉각 기술을 선보였다.

신성엔지니어링은 AI 데이터센터와 첨단 제조시설 등에 적용하는 신제품 '무급유 터보냉동기'와 서버 냉각부터 폐열 재활용까지 연결하는 데이터센터 냉각 솔루션을 공개했다. 센추리는 원자력발전소용 냉동기를 비롯해 공기열 히트펌프, 선박 폐열 발전 시스템, AI 기반 설비 관리 기술을 내놨다. /김승호 기자


28
AI INNOVATION
풀스택 AI·데이터·연계플랫폼 초월기업
Leading AX Platform
온프레미스 & 클라우드 하이브리드형 시장 점유율 1등 기업
ARAG
Graph RAG
LLM 모델
최적화 및 튜닝
LLM/MLOps
멀티
에이전틱빌더
MCP/A2A
Document AI
LLaMON
AX통합플랫폼
VLM OCR
Voice
디지털집현전 AI
민원상담 AI
복지AX
복지상담·안내
ESB
MCP
Gateway
APIG
Gateway
MESIM AX
AI연계플래폼
시장 점유율 1위
AI연계개발
장애 Agent
망/SAP
연계
Dashboard
Observability
Monitoring
자율주행
교통
철도
항공
드론
도시
산단
건설
KLEVER
디지털트윈
휴먼플랫폼
레이더검지
AI영상검지
디지털휴먼
플랫폼
METABUILD
본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2 2사옥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4
교통자율주행 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08 | www.metabuild.co.kr
T 02.598.3327 | F 02.598.3329 | Email support@metabuild.co.kr

사업·인사제도, 그룹차원 결정 '따로따로' 임금교섭 개선 절실

팀 네이버 경영체계 시험대

경기지노위 시정신청 심판회의
본사 포함 16개 법인 통합교섭 요구
카카오 등 IT 업계 전반 파장 주목



지난 21일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 '공동성명'에 따르면 경기지노위는 22일 노조가 제기한 '통합교섭 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을 심리한다. 노조는 이날 낮 12시 경기 성남시 네이버 본사 '1784' 1층 로비에서 집회를 열고 통합교섭 수용을 촉구했다. 사진은 오세윤 지회장이 집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네이버가 강조해 온 '팀네이버' 경영체계가 노사관계에서 시험대에 올랐다. 사업과 인사제도는 그룹 차원에서 연계하면서도 임금과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교섭은 개별 법인별로 진행하는 구조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룹 경영의 효율성과 계열사별 독립성을 강조해 온 플랫폼 기업의 운영 방식이 노동관계에서도 유지될 수 있을지가 쟁점이다.

이번 갈등은 네이버 한 기업의 임금협상을 넘어 국내 정보기술(IT)업계의 노사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계열사를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해 온 플랫폼 기업에서 본사의 경영 권한과 사용자 책임을 어디까지 일치시켜야 하는지가 핵심이다.

22일 IT업계에 따르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네이버지회 '공동성명'이 제기한 통합교섭 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에 대한 심판회의를 연다.

노조는 네이버 본사를 포함한 16개 법인의 통합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본사가 계열사의 인건비와 근무제도 등 주요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교섭에도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네이버 측은 계열사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지위에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 그룹 경영과 노사관계 '엇박자'…반복 교섭 비효율 논란

갈등의 핵심은 네이버의 그룹 경영체계와 개별 법인 중심의 교섭 구조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이다. 네이버는 클라우드와 콘텐츠, 플랫폼 등 사업별로 계열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노조는 인건비 재원과 성과보상 기준, 근무제도 등 주요 결정에 본사가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노조에 따르면 본사를 포함한 16개 법인에서 매년 개별 교섭이 반복되면서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고 있다. 비슷한 의제를 협상하면서도 최종 합의 내용은 유사하게 나타나는 만큼 교섭 구조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됐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네이버 본사의 임금협상이 타결된 이후 계열사들도 유사한 수준으로 합의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교섭 구조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노조는 인건비와 성과보상, 고용대책 등 공통 의제는 본사가 참여하는 기본교섭에서 논의하고 법인별 특수한 사안은 별도의 보충교섭으로 해결하자는 구상이다. 다만 계열사마다 다른 사업 환경과 재무 여건을 어떻게 반영할지는 과제로 남는다.

◆ 네이버 넘어 IT업계로…그룹 단위 교섭 확대 주목

네이버의 통합교섭 논란은 국내 IT업계 전반의 노사관계와도 맞닿아 있다. 플랫폼과 게임업계에서는 계열사 간 근로조건과 교섭 체계를 연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카카오 노조 역시 그룹 차원의 의사결정과 법인별 교섭 구조 사이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사업 방향과 조직개편은 그룹에서 결정하면서 그에 따른 고용과 근로조건 문제는 개별 계열사가 부담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본사의 실질적 영향력을 입증하기 위해 지분 구조와 매출 의존도, 인사 이동, 근로조건 결정 과정 등을 담은 약 2000쪽의 자료를 노동위에 제출했다. 경기지노위가 시정신청을 받아들이면 네이버는 결정에 따라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이번 심판이 통합교섭 자체를 최종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공고 의무가 인정되더라도 구체적인 교섭 범위와 사용자 책임을 둘러싼 추가 다툼이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이번 갈등은 플랫폼 기업이 그룹 차원에서 행사하는 경영 권한을 노동관계상 책임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의 문제다. 네이버에서 시작된 교섭 구조 논쟁이 국내 IT업계 노사관계 변화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KT, 개방형 양자 테스트베드 전국 확대

무선·위성 영역으로도 확장

KT가 전국 네트워크 인프라에 양자암호통신 기술을 상용화 하기 위한 기술 검증에 나선다.

KT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참여하는 '2026 개방형 양자 테스트베드 고도화·확산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차세대 양자 기술의 실증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국가 전략 사업이다. 개방형 양자 테스트베드는 양자암호통신 기술의 상용화와 산업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로, 2028년까지 이 테스트베드를 기존 서울-판교-대전 구간에서 전국 규모로 확대하는게 목표다.

KT는 상용 거점인 '가 구간'과 미래 거점인 '다 구간'의 구축·운영을 맡는다. 이와 함께 산·학·연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공공·국방·금융 등 국가 핵심 분야의 양자보안 기술 활용을 지원해 국내 양자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먼저 상용 거점인 '가 구간' 사업은 대전을 거점으로 전-대구, 대전-광주, 대구-부산 및 서울-춘천 구간을 신규 구축한다. 이를 통해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강원권을 연결하는 전국 단위의 광역 양자암호통신망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국산 양자암호통신 장비와 기술을 바탕으로 개방형 양자 테스트베드를 전국 단위로 확대한다. 서로 다른 통신망과 장비를 연동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금융·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증을 추진해 양자암호통신 기술의 상용화 기반을 마련한다.

미래 거점인 '다 구간'에서는 기존 광케이블 기반의 유선 양자키분배(QKD)를 무선·위성 영역으로 확장한다. 광케이블 유선망 구축이 어려운 구간이나 위성과 지상간 양자암호통신의 활용 범위를 넓힐 수 있다. 또한 양자 얽힘분배 기술을 검증해 서로 떨어진 지점에 양자 얽힘 상태를 공유해 장거리 양자 네트워크 구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KT는 약 4.8㎞ 수준의 무선 양자키분배 실증 거리를 약 15㎞로 확대하고, 장비 모듈화와 대기난류 적응형 광학기술을 적용해 향후 위성으로 확장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다중 노드 간 양자 얽힘 분배 기술을 검증해 장거리 양자 네트워크 구현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조민선 기자

SKT, 의도치 않은 해외망 접속 막는다

'T 로밍 안심국가' 선봬

SK텔레콤은 해외망 접속 단계에서 고객이 로밍 허용 여부를 직접 선택하는 'T 로밍 안심국가'를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고객이 해외 이동 통신망에 처음 연결을 시도할 때, 해당 국가에서의 로밍 허용 여부를 확인하고 연결을 제한하는 서비스로, 국내 통신사 중에서는 처음이다. 고객들은 이 서비스를 통해 의도치 않은 해외망 접속을 막고, 과금이나 부정사용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서비스는 자동 방식과 수동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먼저 자동을 선택하면 출장이나 해외여행 때마다 방문 국가를 직접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해외망 연결을 시도하면 출국 전 공항 방문 여부, 해외망 접속 정보 등을 종합해 정상적인 출국에 따른 것인지를 스스로 판단한다.

수동 방식을 선택하면 고객이 사전에 지정해둔 국가에서만 로밍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허용 국가를 한 곳도 등록하지 않을 경우 해외 로밍 연결이 원천 차단된다.

SK텔레콤은 비정상 인증 차단 시스템(FDS)을 기반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이상 징후를 실시간 탐지하며 상시 보안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로밍 서비스까지 넓혀 능동적인 보안 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T 로밍 안심국가'는 T 월드 홈페이지와 앱, T 로밍 고객센터 등을 통해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조민선 기자

통신3사, 장기 고객 체험형 프로그램 확대

화담숲 초청, 유명 셰프 메뉴 체험 등
장기 고객 관리, 안정적 수익 직결
CEO도 고객 직접 만나며 관리 나서



정재헌 CEO가 지난 8월 열린 장기고객 프로그램 '테이블데이'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SK텔레콤

통신 3사가 장기 고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기존 고객의 이탈을 막기 위해 브랜드 경험을 극대화하는 전략이다.

2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통신 3사는 오래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체험형 프로그램을 개편하고 있다. 이전에도 문화 행사 참여 기회나 영화 관람권 등을 제공했으나 앞으로는 공연, 미식부터 식물원 탐방까지 다양해지는 추세다.

대표적으로 올해 처음 실시한 LG유플러스의 화담숲 초청행사가 있다. LG상록재단이 운영하는 화담숲은 가을철 단풍 명소로 알려졌다. 행사 응모에만 4만 명 이상이 몰렸다. 계절 수요와 고객 등급을 고려해 가을 행사는 10년 이상 이용한 고객이 대상이다. 현재 봄·가을에 연 2회 운영 중이다.

내년에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연간 24회로 확대한다. 기존(8회) 혜택보다 3배 큰 규모다. 지역 고객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프로그램도 추가된다.

SK텔레콤은 유명 셰프의 대표 메뉴를 즐기는 '테이블 데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서울, 대구,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 5곳을 돌며 각 지역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호텔에서 미식을 즐기는 초청 행사다.

KT는 10년 동안 자라섬에서 개최하던 음악 행사를 전국 단위 행사로 전환했다. 행사명도 'KT 보야지 페스티벌'로 정하고, 매년 특정 지역에 찾아가 고객과의 접점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 기존에 운영하던 초대드림 행사를 월별 문화·여가 행사로 확대했다. KT 모바일과 인터넷, TV 결합 상품을 5년 이상 사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이용 기간에 따라 무료 쿠폰도 지급한다.

장기고객 관리는 안정적인 수익 기반인 통신 본업을 지키기 위한 마케팅 전략으로 풀이된다. 가입자가 꾸준히 늘고있는 알뜰폰과 차별화 하고,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는 식이다.

이에 통신사 CEO가 고객 관리에 직접 나서는 모습이다. 정재헌 SK텔레콤 대표는 '숲캉스 데이'와 '테이블 데이'에 참석해 장기고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는 '일상비일상의틈'에 멤버십 전용 라운지를 마련하고 재단장에 앞서 고객을 직접 맞이하는 등 고객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

/조민선 기자 msjo@

LG U+, 장거리 프론트홀 기술 검증

에릭슨과 장비 연결거리 3배 확대

LG유플러스가 6세대 이동통신(6G)의 핵심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 검증에 나섰다.

LG유플러스는 글로벌 통신 장비 기업 에릭슨과 기지국 장비 간 연결 거리를 최대 3배까지 확대하는 장거리 프론트홀 기술을 검증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통신업계는 장비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는 AI-RAN, 클라우드 기반 네트워크 등 차세대 통신 네트워크가 주목받고 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기술인 프론트홀은 기지국의 안테나 역할을 하는 무선장비(RU)와 데이터를 처리하는 장비(DU)를 연결하는 구간이다.

이번 검증에서 에릭슨이 제공한 프론트홀 장비와 네트워크 자동화 기능을 활용해 장거리 프론트홀 환경에서 실증을 진행했다. 또한 자사 기지국 장비와의 연동성과 네트워크 자동화 기능을 함께 검증했다.



LG유플러스 직원들이 서울 강서구 LG유플러스 마곡 사옥 내 장비실에서 장거리 프론트홀 기술을 소개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양 사는 이번 검증을 통해 기지국 장비 간 연결 거리를 최대 3배 확대하면서도 안정적인 통신 품질을 유지하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장애가 발생한 장비를 예비 장비로 자동 전환하는 'DU 이중화' 기술도 함께 시험했다. 향후 네트워크 운영 과정에서 사람의 개입을 줄이고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다.

이번 검증을 통해 안정적인 통신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차세대 네트워크 운영 방안을 검토했다. /조민선 기자

AI 거품 논란에도 반도체 수요 견조… 삼전닉스 반등론 '솔솔'

반도체 수요 2028년까지 공급 상회
금리·AI 투자 불확실성 완화 전망
업계, 실적 개선·주가 반등에 무게



AI 거품 우려로 하락하는 반도체 주가와 견조한 수요 전망 속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반등 기대를 표현한 이미지. /ChatGPT로 생성한 관련 이미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주들이 인공지능(AI) 거품 우려를 딛고 '따뜻한 겨울'을 맞이할 수 있을까. 시장에서는 AI 투자 열풍에 거품이 있지만, 반도체가 수혜를 받을 것이란데 큰 이견이 없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도 21일(현지시간) 유럽 산업계에 AI의 빠른 도입을 촉구하며 AI 인프라 투자에 낙관적인 전망을 드러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다. 황 CEO의 이번 유럽 순회는 AI 인프라에 쏟아붓는 막대한 자금을 둘러싼 투자자들의 회의론이 커지고 최근 2주간 AI·반도체 주가가 타격을 입은 시점에 이뤄졌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008년 이후 최장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날보다 4.03% 내린 21만4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52주 최고가인 38만원보다는 43.55% 낮았다. SK하이닉스는 5.49% 내린 122만30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최고가 300만2000원 대비 59.26% 하락했다.

주가와 전망은 온도차를 보인다. AI 반도체 수요 전망이 여전히 견조하기 때문이다. AI 반도체 수요는 2028년까지 공급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상승 여력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향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가시성이 높아지면 현재 주가와 실적 전망 사이의 괴리도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실적과 주가의 이례적 괴리가 역사적 최저 수준으로 확대된 상태"라며 "11~12월에는 실적과 밸류에이션의 이례적 괴리가 축소되는 과정에서 W자 반등이 시작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주가를 압박해온 금리와 AI 인프라 투자 관련 불확실성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5% 중반에서 단기 고점을 형성했다는 판단이다. AI 데이터센터 사업자인 코어위브 등 네오클라우드 업체의 재무건전성 우려 역시 주가에 과도하게 반영되면서 AI 투자 지속성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점차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미국 중간선거 이후 AI 투자 불확실성 완화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 가시성 확대를 고려할 때, 현재 주가는 우려의 정점을 통과한 것으로 판단돼 하락 위험 보다는 상승 여력에 주목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노무라증권도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글로벌 메모리 업종의 '주목할 종목'으로 꼽고 두 회사 모두에 '매수' 의견을 제시했다. 노무라가 추적한 전 세계 데이터센터 신규 설비 규모는 올해 22.3기가와트(GW)에서 내년 31.5GW로 증가할 전망이다. 노무라는 이 같은 설비 확대를 바탕으로 메모리 수요 증가 속도가 공급 증가보다 빨라 가격에도 우호적인 환경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반도체 업체들의 현금 창출력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포함한 반도체 기업 9곳의 합산 순현금은 올해 2분기 2820억 달러(약 374조7000억원)에서 2028년 말 약 2조 달러(약 2657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노무라는 중국 창신메모리(CXMT)의 기술 전환을 둘러싼 시장의 우려가 지나치다고 평가했다.

한편, 세계적인 헤지펀드 시타델 켄 그리핀 회장은 "최근 AI 투자 열풍은 확실히 거품 상태다"면서도 "거품에서 생존에 성공한 기업들이 수 십 년간 시장을 주도할 수 있고, 새로운 기업가 정신의 황금시대를 열 것이다"라고 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네이버·두나무 결합 독점 우려… 금융위, 안전장치 검토

거래소 공공성·중립성 확보 방안 추진
자기자본·시장 운영 역량도 강조



3사 경영진들이 지난해 11월 2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1784에서 열린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3사 공동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두나무

금융당국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에 따른 시장 지배력 우려와 관련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안전장치를 검토하고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특정 기업이나 주주의 영향력으로 거래소 운영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22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에서 금융위는 양사 결합에 따른 독점 방지 장치에 관한 질의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네이버·두나무 기업 결합 시 경쟁제한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며 "같은 취지로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도 시장의 핵심 인프라인 거래소가 특정 기업이나 주주의 지배력으로 인해 공공성과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해 11월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두나무를 100% 자회사로 편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주식교환을 완료하려면 공정위 기업결합 승인과 네이버파이낸셜 대주주 변경 승인, 두나무 대주주 변경 신고 수리 등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정위 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시장 일각에서는 결합 이후 시장 지배력 집중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소 인가 정책과 관련해서도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조했다. 약 1000만명이 이용하는 거래소를 가상자산 유통의 핵심 인프라로 보고, 이에 걸맞은 자기자본과 시장 운영 능력을 갖추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거래소가 시장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거래소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라며 관련 내용이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의 운영 방식과 종류 등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 글로벌 입법 사례와 국내 시장 여건을 함께 고려하고,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국회의 입법 논의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실물연계자산(RWA)과 가상자산 기반 파생상품 등 국내 시장에서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

금감원

두나무 '기와' 사칭 가짜 체인 사기 주의보

유사 주소·체인 ID로 투자자 유인

금융감독원은 22일 두나무가 개발 중인 블록체인 네트워크 '기와(GIWA)' 등을 사칭한 가짜 체인 사기와 관련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사기조직은 개발사의 공식 발표가 없는데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커뮤니티에 메인넷이 기습 출시됐다는 허위 정보를 유포했다. 이후 블록체인 접속에 쓰이는 원격절차호출(RPC) 주소와 네트워크 식별번호인 체인 ID, 서로 다른 블록체인 간 자산을 옮기는 브릿지 등을 공식 네트워크와 유사하게 꾸몄다.

최근 발생한 기와 사칭 사건에서는 공식 네트워크의 체인 ID '91342'와 비슷한 '9134'를 사용했다. 당시 공식 네트워크는 출시되지 않은 상태였다.

탈중앙화거래소(DEX)인 디와이스왑(DYOR Swap)이 가짜 네트워크를 진짜로 오인해 지원하면서 이용자들이 가짜 브릿지로 이더리움을 입금했다. 사기조직은 이렇게 모인 가상자산을 한꺼번에 인출해 가로챘다.

금감원은 온체인 기반 사기의 경우 자금 이동과 탈취가 수분에서 수시간 안에 이뤄져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탈중앙화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복구가 어려워 자산을 전송하기 전 확인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투자자는 새로운 네트워크나 체인이 등장하면 개발사의 공식 홈페이지와 공지사항을 통해 실제 출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정식 출시되지 않았거나 개발 중인 메인넷을 지원한다고 내세우는 브릿지와 스마트계약 등을 사기로 지목했다.

개발사 공식 계정에서 확인되지 않는 기습 출시와 에어드랍, 사전 참여 이벤트도 대표적인 사기·피싱 수법으로 꼽았다. 의심스러운 경우 즉시 거래와 자산 전송을 멈추고 공식 채널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허정윤 기자

상담부터 휴식까지… 업비트 라운지 새단장

브랜드·빅차트·상담 존 등 구성



업비트 라운지 '업비트리 가든' 전경. /업비트

가상자산 거래소가 거래 지원을 넘어 고객 상담과 브랜드 체험을 결합한 오프라인 공간으로 접점을 넓히고 있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다채로운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새단장한 '업비트 라운지'를 22일 열었다. 업비트 라운지는 고객 서비스와 장애 지원, 상담을 전담하는 오프라인 창구로, 업비트 이용 중 도움이 필요한 고객 누구나 방문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다.

새로워진 업비트 라운지는 1층 인포데스크 및 ESG 프로젝트 공간 '업비트리 가든(UPbiTree Garden)'과 2층 '브랜드 존', '빅차트 존', '상담 존' 등 층별 테마 공간으로 구성됐다.

1층에는 두나무의 대표 ESG 프로젝트인 '업비트리 가든'이 조성됐다. '당신의 Rest가 Forest가 되는 곳'이라는 슬로건 아래 기획된 '업비트리'는 기존의 '디지털 치유정원'과 '시드볼트NFT 컬렉션'을 하나로 통합한 두나무의 ESG 브랜드다.

2층 브랜드 존은 2012년 두나무 설립부터 2017년 업비트 출시, 글로벌 블록체인 인프라로의 확장까지 두나무의 발자취와 향후 비전을 담았다. 브랜드 존은 업비트의 주요 성과와 글로벌 사업 현황, 그리고 Web3 인프라 브랜드 'GIWA(기와)'를 통한 확장 계획들로 채워져있다. 특히, 기와가 서로 맞물려 지붕을 이루듯 견고한 Web3 생태계의 기반이 되겠다는 포부를 입체적인 블록 구조와 디지털 그래픽으로 시각화했다.

빅차트 존은 업비트의 우수한 데이터 기술력을 바탕으로 주요 디지털자산 시세, 업비트 종합 지수, 공포탐욕지수 등 다양한 시장 데이터를 직관적으로 제공한다.

두나무는 재개장을 기념해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다채로운 현장 이벤트를 진행한다. 현장 이벤트는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열리며, 업비트 회원은 사전 예약 없이 방문해 1층 인포데스크에서 인증 후 참여할 수 있다.

특별한 게임도 마련됐다. 20초 안에 비트코인 딱지를 뒤집으면 1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쿠폰을 지급하며, 행사 기간 중 최단 기록을 세운 1명에게는 1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증정한다. '도슨트 투어'도 매시 정각과 30분에 진행된다. /신하은 기자

김정관 "메가특구법, 노동 특례 포함해야… 국회 통과 총력"

〈산업통상부 장관〉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국감

산업 프로젝트 신속 추진 강조

원전 국내외 업무 분리 비효율 지적

희토류 공급망 다변화에 공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메가특구법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을 묻는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저희 부는 메가특구법에 노동 관련 예외조항들이 반드시 포함돼서 갔으면 하는 게 바람"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메가특구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다. 산업 현장의 규제 부담을 낮추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려는 취지지만, 노동 관련 특례를 둘러싸고 관계부처 간 입장 차이가 이어지고 있다.

김 장관은 "메가특구법이 빨리 입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노동 관련 예외조항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다만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아마 사회적 논의를 거치자는 판단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산업부가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계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분명히 해달라는 내용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재정 지원의 적정성도 도마에 올랐다. 조 의원은 연간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통합재정 지원사업에서 전력 등 기반시설 구축 비용이 구체적으로 산정됐는지, 반도체 특별법에 따른 국비 지원과 중복될 가능성은 없는지 따져 물었다. 김 장관은 "5조원 중에 어디에 쓸 것인가는 전남광주시가 판단한 것"이라며 "지방정부 입장에서 1조5000억원을 특별히 이곳에 쓰겠다고 한 것을 저희들이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이 구체화되면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에너지 정책 분리에 따른 비효율 문제도 제기됐다. 김 장관은 정부조직 개편으로 산업과 에너지 업무가 분리된 데 대해 "산업과 에너지는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국내 원전과 해외 원전이 나눠져 있다 보니 비효율도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다만 "변함은 없지만 이렇게 (개편)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잘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현 체제에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국내 원전 정책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해외 원전 수출 업무는 산업통상부가 담당한다.

공급망 안정과 통상 현안에 대한 대응 의지도 내비쳤다. 김 장관은 중국 의존도가 높은 희토류 공급망과 관련해 "아픈 부분"이라며 "어떻게 해서든지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정상화시켜 기능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자원개발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공동투자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CPTPP에 가입해야 한다는 의지는 분명히 있다"며 "통상 주무장관으로서 꼭 CPTPP에 가입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농림업계와의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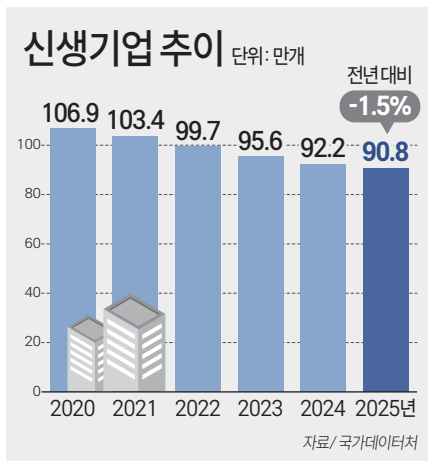
고물가·소비 부진에 창업, 5년째 '감소'

데이터처, 작년 신생기업 9년來 최소

창업해도 3곳 중 1곳은 1년 못 버텨

지난해 새로 생겨난 기업 수가 9년 사이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했다. 고물가 및 소비 부진의 영향을 받았다.

국가데이터처가 22일 발표한 '2025년 기업생멸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작년 신생기업 수는 전년대비 1만4000개 감소한 90만8000개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88만4000개) 이후 9년 만에 최소 수준이다.



신생기업은 2020년 106만9000개에서 2021년 103만4000개(-3.3%), 2022년 99만7000개(-3.5%), 2023년 95만6000개(-4.2%), 2024년 92만2000개(-3.5%)에 이어 지난해까지 5년 연속 줄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고물가와 소비 부진 등의 영향으로 신생기업이 5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12·3계엄 여파 및 정국 불안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숙박·음식점업과 부동산업 창업에 소비 부진 타격이 두드러졌다. 숙박·음식점업 신생기업 수는 12만8000개로 1만6000개(11.0%) 줄었다. 부동산업은 15만5000개로 1만5000개(8.6%) 감소했다.

제조업은 3만2000개로 5.5%, 건설업은 4만4000개로 7.1% 줄었다. 반면 도·소매업 신생기업은 24만4000개로 전년보다 1만4000개(6.2%) 늘었다.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과 정보통신업도 각각 8.5%, 6.1% 증가했다.

특히 부동산업을 제외한 신생기업은 75만4000개로 전년보다 0.1% 늘었다. 전체 신생기업 감소에 부동산업 부진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셈이다.

전체 활동기업에서 신생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인 신생률은 11.7%로 전년보다 0.3%포인트(p) 하락했다. 2011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매출액이 있거나 상용근로자를 둔 활동기업은 774만8000개로 전년보다 10만6000개(1.4%) 증가했다. 도·소매업에서 3만개(1.9%), 개인서비스업에서 1만9000개(5.0%) 늘었지만, 숙박·음식점업에서는 1만2000개(1.3%) 줄었다.

2023년 신생기업 중 이듬해까지 1년간 생존한 기업 비율(1년 생존율)은 63.9%로 전년보다 0.5%p 하락했다. 새로 생긴 기업 10곳 중 3곳 이상이 1년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했다는 의미다.

1년 생존율은 2023년 64.4%로 전년 대비 0.5%포인트(p) 하락한 후 지난해까지 2년 연속 낮아졌다. 업종별로는 운수·창고업이 70.3%로 3.2%p 떨어졌고, 부동산업은 64.6%로 1.3%p 낮아졌다. 반면 농림어업은 57.7%로 6.9%p, 교육서비스업은 67.5%로 4.0%p 상승했다.

2019년 신생기업이 2024년까지 생존한 비율인 5년 생존율은 36.5%로 전년보다 0.1%p 올랐다. 2016년 이후 8년 연속 상승했지만, 여전히 신생기업 3곳 중 2곳가량은 5년 뒤 생존하지 못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보령에 고성능 전기차 평가 인프라 구축

한자연, 2.5만rpm 구동계 시험 가능

국내 고성능 친환경차 부품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핵심 거점이 충청남도 보령에 들어섰다. 완성차부터 개별 부품까지 아우르는 '고성능 전기차 통합 평가 체계'가 본격 가동되면서, 그간 고비용 시험 장비 부재로 어려움을 겪어 온 국내 중소·중견 부품업체들의 미래차 전환에 기여할 전망이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이하 한자연)은 충남 보령시 주교면 관창일반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고성능 전동화센터'의 핵심 평가 인프라인 '초고속 구동계 다이나모미터'와 '전기차 전용 무향실 차대동력계' 구축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시험 지원 서비스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인프라 구축은 산업통상부와 충청남도, 보령시가 뜻을 모아 총 198억원(국비 100억원, 지방비 98억원)을 투입한 '고성능 전기차용 전동화시스템 성능평가 기반구축' 사업을 통해 이뤄졌다.

최근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테슬라, 현대차 아이오닉 5 N 등 고성능 전기차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모터 회전수가 분당 수만 회에 달하고 출력이 수백 마력을 상회하는 고성능 전동화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한국자동차연구원 고성능 전동화센터에 구축한 전기차 전용 무향실 차대동력계 장비 /한자연

한자연은 이번 고성능 전동화센터 가동을 통해 이러한 현장의 난제를 해소했다. 우선 '초고속 구동계 다이나모미터'는 최대 회전수 2만5000rpm(분당회전수), 출력 400kW(약 540마력)급에 달하는 고성능 구동계의 성능을 극한까지 시험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어촌公, 농지은행 임대수탁 신청 간소화

종이서류 없애고 절차 단축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은행 임대수탁(임대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 종이서류 없이 신청하고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까지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

22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이번 개편은 이날부터 시행하며 기존에 휴대전화 본인인증과 각종 서류 제출이 필요했던 절차를 서명 단 한 번으로 간소화했다. 21일 개편된 서비스 지원이 시작됐다. 지금까지는 농지은행에 농지를 맡기러 가면, 휴대전화 본인인증으로 7종의 서류를 공공마이데이터로 제출하고 등기부등본은 별도로 발급받은 후 제출해야 했다.

이제 등기부등본도 직원이 직접 열람하도록 바꿔 이용자가 별도로 발급·제출할 필요가 없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 농업인도 신분증만 지참하면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 제출 정보가 신청서에 자동 입력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서류 제출부터 계약서 작성까지 걸리는 시간도 평균 9분 30초대에서 4분대로 절반 이상 줄였다.

특히 임대수탁 계약 이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변경할 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할 필요 없이 농지은행에서 변경 신청을 함께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은 기존처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해야 한다.

이정문 농어촌공사 농지관리이사는 "앞으로도 현장과 먼저 소통하며 신뢰받는 농지은행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석탄발전 첫 추월

전체 설비용량의 25.4% 차지

대한민국 전력 시장에서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석탄발전을 처음으로 넘어서며 LNG(액화천연가스)에 이어 제2의 발전원으로 올라섰다. 태양광과 풍력 등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이 속도를 내면서 향후 2~3년 내 LNG를 넘어 국내 최대 전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총용량이 4만1040MW(메가와트)로 집계돼, 석탄발전 설비용량 4만757MW를 283MW 상회했다.

이번 역전으로 재생에너지는 전체 발전설비의 25.4%를 차지하게 되며, LNG에 이어 설비용량 기준 국내 두 번째 규모의 전원으로 올라섰다. 현재 설비용량이 가장 큰 LNG는 4만6788MW로, 재생에너지와의 격차는 약 5748MW로 바짝 좁혀진 상태다.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2010년대 초반부터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왔다. 특히 2010년대 후반부터 보급 규모가 빠르게 확대됐으며, 2020년대 들어서도 신규 설비가 지속적으로 확충되면서 전통적 주력 발전원인 석탄발전과의 설비용량 격차를 좁혀왔다.

/세종=한용수 기자

Since 1996
대한홍삼 건강백화점

건강창업의 새로운 기준!

대한민국 유통 명가 햇터그룹이 당신의 '성공창업'을 지원합니다.

30년 유통 노하우와 브레인TV 홍보 지원으로 검증된 건강 브랜드, 대한홍삼 건강백화점!



공식파트너 모집

불황에도 꺾이지 않는 30년 건강 비즈니스, 이제 당신의 이름으로 시작하십시오.

자사 TV 방송국 광고 지원
브레인TV 채널 노출을 통한 강력한 마케팅

건강에 대한 모든 해답을 한 곳에!
명품 홍삼, 건강식품, 건강용품, 의료기기 등 검증된 라인업

유연한 창업 모델
무점포부터 대형 매장까지 맞춤형 컨설팅

최저 창업 비용 398만원
부담 없고 합리적인 창업비용으로 실질적인 기회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30년 노하우를 통째로 빌려드립니다.

상담 문의 환영 1522-7585

창업상담 방문을 하시는 모든 분께
- 무료 창업 컨설팅 제공
- 창업가이드북 증정
- 홍삼선물세트 198,000원 상당 증정

QR 스캔
대한홍삼(주)

대한홍삼[주] www.koreahongsam.co.kr
본사 : 서울시 금천구 가마산로 96 대륭테크노타운8차 601호
(가산디지털단지역 하차 ▶ 1호선 11번 출구 / 7호선 9번 출구)

Since 1996
햇터그룹
Haetter Group

N수생 대입 문 좁아진다… 예비 고3도 대학별 계산법 복잡

내년 '학생부교과전형' 분석

주요 14개 대학 중 12곳, 졸업생 제한
졸업생, 건국대·동국대만 지원 가능

내년부터 내신 5등급제 첫 적용
최저학력 기준 따라 경쟁률 변동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11월 19일) 전 마지막 모의고사인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된 20일 인천 인천 부평구 상정고등학교에서 고3 수험생들이 문제를 풀고 있다. /뉴시스

내년 대입에서 주요 대학의 학생부교과전형 졸업생 지원 제한이 확대된다. 졸업생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줄어드는 만큼 고3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만 내신 5등급제가 처음 적용되는 입시인 데다 수능최저학력기준도 달라져 지원 전략을 세울 때 전형별 유불리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가 주요 14개 대학의 학생부교과전형을 분석한 결과, 2028학년도에 졸업생 지원을 제한하는 대학은 12개교(13개 전형)로 집계됐다. 2027학년도에는 3개교·3개 전형이었지만 1년 새 대학은 9곳 늘었다. 학생부교과전형을 운영하지 않는 서울대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존 고려대·서강대·연세대(서울)에 더해 경희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숙명여대·이화여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홍익대 등이 지원을 제한한다. 이에 따라 졸업생이 지원할 수 있는 곳은 건국대 (서울)와 동국대(서울) 두 곳만 남는다. 졸업생 지원 풀이 줄면서 재학생은 졸업생과 경쟁하는 부담을 덜 수 있지만 내신 평가 체계 개편 등 변수가 존재하는 만큼, 지원 가능성은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

2028학년도 대입부터는 내신5등급제가 처음 적용된다. 기존 9등급제에서는 상위 4%까지 1등급이었지만, 5등급제에서는 상위 10%까지 1등급을 받는다. 1~2등급 누적 비율도 기존 11%에서 34%로 넓어진다. 이투스는 "같은 등급에 포함되는 학생이 많아지는 만큼 이전 입시의 내신 합격선을 새 체제에 그대로 대입하기는 어렵다"며 대학별 내신 산출 방식과 교과 성적 반영 방법을 확인해 자기 성적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학별 성적 반영 방식을 살펴보면, 홍익대는 교과 성적 95%와 출결 5%를, 중앙대와 서강대는 교과 90%와 출결 10%를 반영한다. 고려대는 교과 80%에 서류 20%, 한국외대와 숙명여대는 교과 70%에 서류 30%를 적용한다. 서울시립대 지역균형선발전형과 한양대(서울) 추천형은 교과 60%, 서류 40%로 평가한다. 동국대(서울) 학교장추천인재전형은 공통과목을 제외하고 성취도와 석차 등급이 함께 기재된 상위 10개 과목을 평가에 활용한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달라진다. 건국대 KU지역균형은 내년부터 수능 최저(국어·수학·영어·탐구 중 3개 영역 등급 합 8 이내)를 적용한다. 반면, 한양대 추천형은 기존 3개 영역 등급 합 7 이내에서 3개 영역 모두 3등급 이내로 변경한다. 고려대 학교추천 전형은 수능 최저를 전면 폐지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실질 경쟁률도 달라질 수 있다. 지난해 최초 경쟁률과 실질 경쟁률을 비교하면 서울시립대 지역균형선발전형은 11.27대 1에서 7.96대 1로, 한양대 추천형은 10.22대 1에서 7.21대 1로 낮아졌다. 서강대 지역균형전형도 10.85대 1에서 1.57대 1로 하락했다. 최초 경쟁률이 높더라도 실제 경쟁 구도는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지원 대학을 선택할 때 수능 최저 충족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졸업생 지원 제한은 재학생의 경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지만, 지원 유불리는 대학별 반영 방식과 수능최저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학생부교과전형 지원 여부를 현재 내신 성적만으로 일찍 결정하기보다 대학별 교과 반영 방식과 서류평가 비중,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남은 학기 동안 성적을 보완할 과목을 점검하고, 자신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전형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수정 기자
kcrystal@metroseoul.co.kr

서울 공립 중등교사 선발, 1년 새 30% 줄어

공립 694명 선발에 5207명 지원
선발 306명, 지원자 293명 줄어



지난 2월 24일 대구 수성구 대구시교육청 행복관에서 열린 신규임용교사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한 신규교사들이 참된 스승이 될 것을 다짐하며 선서를 하고 있다.

서울 공립 중등교사 선발 규모가 1년 새 30% 넘게 줄면서 경쟁률은 반등했지만, 지원자는 4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발 규모가 오르내리는 동안 응시자는 줄곧 감소한 가운데, 학령인구 감소로 전국 공립 중등 신규 채용은 2030학년도까지 3300~3700명으로 줄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1일 '2027학년도 중등학교교사 등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를 발표했다.

공립은 694명 선발에 5207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7.50대 1을 기록했다. 전년 5.50대 1보다 상승한 수치다. 중등 교과교사 경쟁률도 4.89대 1에서 7.17대 1로 높아졌다. 선발인원이 전년보다 306명(30.6%) 줄고 지원자는 293명(5.3%) 줄었다. 선발 인원이 더 큰 폭으로 줄며 경쟁률이 상승했다.

2027학년도 선발 인원은 694명으로 2023학년도보다 67명 적고, 지원자는 5207명으로 1288명(19.8%) 줄었다. 선발 규모가 늘어나는 동안 이어진 지원자 감소세가 올해도 지속된 것이다.

사립 위탁 시험에서도 지원자 감소가 나타났다. 공·사립 동시지원 방식 법인(공립 동시지원 포함)의 지원자는 2023학년도 3820명에서 올해 2792명으로 27% 줄었다. 경쟁률은 50.26대 1에서 38.78대 1로 낮아졌다.

올해 서울 중등 교과교사 선발이 900명에서 584명으로 316명(35.1%) 감소한 가운데, 전국적으로도 중등교사 선발 규모가 줄었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공고를 취합한 결과, 전국 공립 중등교사 선발 예정 인원은 6401명으로 2026학년도 8308명보다 약 23% 감소했다. 교과교사 선발 인원도 7147명에서 4932명으로 약 31% 줄었다. 서울의 교과교사 선발 감소 폭은 전국보다 컸다.

교육부는 지난 6월 발표한 교원 수급 방향에서 2027학년도 전국 중등 신규 채용 규모를 4700~5100명으로 제시했다. 이후 신규 채용 규모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등 신규 채용 규모는 2028학년도 4200~4600명, 2029학년도 3500~3900명, 2030학년도 3300~37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공립 초·중등 학생 수 역시 2030년까지 2025년 422만명보다 약 90만명 감소하고, 이 가운데 중등학생은 약 20만명(11%)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김수정 기자

의대 지원 줄고, 이공계 진학 선호 커져

과기원 중도 탈락자 241명 집계
3년 연속 감소… 지원은 역대 최고

이공계 학생들의 의대 선호도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인 과학기술원 중도 탈락자 수가 최근 6년 새 최저 수준으로 줄었다. 과기원 수시모집 지원자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과학고와 영재학교 지원자 수도 함께 늘면서 이공계 진학 선호가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22일 입시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과학기술원(KAIST)·울산과학기술원(UNIST)·광주과학기술원(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등 4개 과학기술원의 중도 탈락자는 241명으로 집계됐다.

종로학원이 대학알리미 공시 자료를 바탕으로 2020년~2025년 과기원 중도 탈락 규모를 조사한 결과, 2020년 277명, 2021년 259명에서 2022년 295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2023년 288명, 2024년 250명에 이어 2025년까지 3년 연속 감소했다. 중도 탈락자가 가장 많았던 2022년과 비교하면 18.3% 줄었다.

과기원 지원은 올해 들어 역대 최고를 찍었다. 올해 4개 과기원 수시모집 지원자는 정원 내외 기준 3만3349명으로, 전년 2만4423명보다 8926명(36.5%) 늘었다. 2021년 1만2354명과 비교하면 약 2.7배 수준이다.

이공계 고등학교 선호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영재학교·과학고 지원자는 일반전형 기준 9626명으로, 전년 8674명보다 952명(11.0%) 증가했다. 최근 6년 새 가장 큰 규모다. 영재학교 지원자는 4155명, 과학고 지원자는 5471명으로 각각 전년 대비 328명, 624명 증가했다.

/김수정 기자

전국 교육청, AI 시대 교육 혁신·방향 논의

내일 '혁신미래교육 FORWARD'
교원, 학부모, 교육 전문가 등 참여

AI 시대 교육 혁신과 미래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전국 교육청이 한자리에 모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4일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교육연수원에서 '2026 혁신미래교육 FORWARD'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마음을 잇는 교육, 미래를 여는 학교'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경기·경남·대전·부산·세종·울산·인천·전북·제주·충남 등 10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주관하고 교육부가 후원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행사를 기존 혁신미래교육 논의에서 전국 단위 협력으로 확대했다. 지역과 학교별 사례를 공유하고 교육 현장의 연구·실천 경험을 정책 논의로 연결한다는 취지다. 참여 대상은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과 학부모, 학생, 교육 전문가 등이다.

양소희 유난무브먼트&밸리드 대표가 기조 강연을 맡았다. 양 대표는 '좋은 어른, 좋은 시민다움을 키우는 교육공동체의 길'을 주제로, 공동체의 유대가 약해진 시대에 민주시민교육의 과제를 살펴본다.

학생과 교사의 대담도 이어진다. 수락고 안혜정 교사와 충암고 문성호 학생(청소년 독립 언론 '토끼풀' 편집장)이 패널로 참여해 민주주의 교육의 방향을 논의한다.

오후에는 교원·교수·연구자가 참여하는 주제별 세션을 진행한다. 이들은 ▲교육과정 자치▲학교의 공간민주주의 ▲교실 내 혐오·차별에 대응하는 민주주의 교육 등 혁신교육 관련 연구 사례를 발표한다. 아울러 한국교육개발원의 '학교 성장과 변화에 대한 10년 연구'를 바탕으로 AI 시대 교육의 역할도 짚어본다.

네트워크 세션도 마련했다. 건국대·성공회대·한국교원대의 혁신교육 전공 대학원과 전국혁신미래고등학교네트워크, 서울혁신교육네트워크 등 관련 단체들이 기획했다. 서울 혁신교육의 지난 15년을 돌아보고 향후 정책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는 '혁신미래학교 2.0 정책방향 토론'도 이어진다.

/김수정 기자

교육부, 사회정서교육 우수사례 첫 공모

오는 26일부터 내달 4일까지 접수

내년부터 사회정서교육이 연간 17차시로 확대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실제 교육현장에서 학생 마음 건강을 증진한 우수사례를 공모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은 '2026년 한국형 사회정서교육 우수 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참가 대상은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소속 교원과 교육전문직원이며, 접수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4일 오후 6시까지다.

한국형 사회정서교육은 학생의 마음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예방 교육이다. 자기관리와 타인과의 소통, 마음 돌봄 등 핵심 요소를 통해 학생 스스로 긍정적인 마음을 함양하고 정서적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번 공모전은 학교 교육과정에 사회정서교육을 적용한 사례를 대상으로 한다. 학생의 마음 건강과 공동체 의식 증진, 학업 성취 향상 등을 위해 실제로 운영한 사례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심사를 통과한 10개 사례를 대상으로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한다. 최종 결과는 11월 말 발표하며, 선정 사례는 사례집과 성과 공유회를 통해 학교 현장에 소개한다.

/김수정 기자

러닝 열풍에 유통가도 뛴다… 브랜드 확대·체험 서비스 강화

현대百 새티스파이 리테일 운영
무신사 트라이얼 서비스 이용 증가
CU 한강 등 러닝 특화점포 확대

러닝 열풍이 계속되면서 유통업체들이 관련 상품과 서비스 경쟁을 강화하고 있다. 프리미엄 러닝 브랜드 도입부터 러닝화 체험 서비스, 러닝 특화 매장 운영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상품 판매를 넘어 러너들의 활동 공간과 일상생활 속에서 고객 접점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다.

22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국내 러닝 인구가 늘어나면서 관련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규칙적 생활체육 참여자 가운데 달리기를 주요 운동 종목으로 꼽은 비율은 2024년 4.8%에서 지난해 7.7%로 2.9%포인트 상승했다. 전년 대비 약 60% 증가한 수준이다.

마라톤 대회 참가도 활발하다. 마라톤 대회 정보 플랫폼 아임마라톤이 집계한 올해 상반기 국내 마라톤 대회는 총 224개로, 누적 참가 연인원은 79만8438명에 달했다.



러닝 전문 편집숍 '무신사 런 서울숲' /무신사

러닝을 비롯한 스포츠 수요 확대는 유통업계의 매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국내 주요 백화점 3사의 스포츠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일제히 20% 이상 증가했다. 온라인 패션 플랫폼에서도 러닝 관련 상품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무신사가 운영하는 29CM의 올해 상반기 러닝 의류·용품 거래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0% 이상 증가했다.

러닝 시장이 성장하면서 유통업체들은 전문 브랜드 확보와 체험형 콘텐츠 확대에 나서고 있다. 상품 판매를 넘어 러닝 체험과 커뮤니티를 제공하며 고객 접점을 넓히는 추세다.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패션기업 한섬은 최근 프랑스 러닝 브랜드 '새티스파이(SATISFY)'와 국내 독점 리테일 운영 계약을 체결했다. 한섬은 내년 상반기 서울에서 팝업스토어를 운영하고 하반기에는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 예정이다. 럭셔리 패션 중심이었던 해외 브랜드 사업을 스포츠 분야로 확장하기 위한 전략이다.

백화점 업계는 러닝 전문 브랜드 입점을 확대하는 동시에 대회와 연계한 체험형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지난달 롯데월드몰에서 '2026 서울 100K X 아디다스' 팝업스토어를 운영했다. 서울 도심과 산, 강을 가로지르는 트레일러닝 대회 '서울 100K'와 연계한 행사로, 러닝화와 의류 등 115여 종의 상품을 선보이고 커스터마이징 프린팅 서비스 등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CU 러닝 스테이션 점포. /BGF리테일

온라인 플랫폼과 스포츠 브랜드들은 실제 달리기 경험을 구매로 연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매장에서 러닝화를 신어보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달려보며 제품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체험 서비스를 강화하는 추세다.

무신사가 운영하는 러닝 전문 편집숍 '무신사 런 서울숲'의 지난 9월 러닝화 트라이얼 서비스 이용 건수는 1350건으로, 8월 586건보다 약 2.3배 증가했다. 해당 서비스는 고객이 매장에서 러닝화를 대여해 서울숲 일대를 직접 달려볼 수 있도록 운영된다. 무신사는 지난 4월 개점 당시 3개였던 대여 브랜드를 7개로 확대했다.

스포츠 브랜드들도 러닝 코스와 연계한 체험형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뉴발란스는 북촌 런 허브점 등에서 러닝화와 의류 대여 서비스를 운영해 왔으며, 푸마는 지난 9월 서울 북촌에 문을 연 '스니커 박스 북촌점'에 발 형태를 측정하는 풋스캐너와 트레드밀을 갖춘 러닝랩을 마련했다. 아디다스는 서울 서촌의 '아디다스 퍼포먼스 서촌'을 통해 인근 러닝 코스와 매장 방문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고객 접점을 넓혔다.

패션 거래 플랫폼 크림은 지난달 CU, 러닝 전문 브랜드 '런위더'와 협업해 여의도 한강공원 CU 러닝 스테이션에서 팝업스토어를 운영했다. 거점으로 활용된 한강공원 CU 러닝 스테이션은 러닝 관련 고객 경험을 강화한 특화 점포다.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한강 인근에 러닝 스테이션 1호점(CU한강여의도3호점)을 선보인 이후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19개까지 확대하며 러닝 거점 네트워크를 조성해오고 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셀트리온, 'KG013' 개발·판매 권리 확보

〈자기면역질환 신약 후보물질〉

7700억 규모 글로벌 라이선스 인 계약
자가면역질환 포트폴리오 다각화 계획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로 다진 글로벌 입지에 '신약개발'이라는 새로운 성장축을 세우고 있다. 기존 제품군에 서로 다른 기전의 자가면역질환 신약 후보물질을 잇따라 도입해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한다.

셀트리온은 미국 메릴랜드 소재 바이오텍 카이진과 자가면역질환 신약 후보물질 'KG013'에 대한 글로벌 라이선스 인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셀트리온은 KG013의 전 세계 독점적 개발 및 판매 권리를 확보하게 됐다. 전체 계약 규모는 선급금과 향후 단계별 개발·허가·상업화 마일스톤을 포함해 최대 5억8050만 달러(약 7695억원)에 달한다. 상업화 이후 발생 매출에 따른 로열티는 별도로 지급되며, 카이진은 한국 시장에 한해 공동 판매 참여 권리를 갖는다.

KG013은 항체 생성 B-세포의 생존에 관여하는 신호 단백질 'APRIL'을 표적으로 하는 차세대 항체 신약 물질이다. 만성 질환인 IgA 신병증(IgAN) 등을 주요 적응증으로 개발 중이다. 기존 1세대 치료제 대비 약물 효력과 체내 지속성을 크게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다. 적은 투여량과 긴 투여 간격으로 환자 편의성을 높이고 장기 치료의 안전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셀트리온은 이러한 차별화된 약물 특성을 바탕으로 계열 내 최고 의약품(베스트 인 클래스) 신약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셀트리온은 지난해 카이진에서 도입한 FcRn 억제제 등 2종의 후보물질에 더해 총 3종의 자가면역질환 신약 파이프라인을 완성했다. IgG 분해 기전을 갖춘 물질부터 IgA·IgM 생성을 억제하는 KG013까지 다각도에서 상호 보완적인 기전을 구현할 계획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전략적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차세대 자가면역질환 파이프라인이 더욱 견고해졌다"며 "기존 주력 제품군인 종양괴사인자 알파(TNF-α) 억제제 및 인터루킨(IL) 억제제 바이오시밀러 제품군과의 시너지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독보적인 경쟁 우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이청하 기자 mlee236@

롯데칠성음료, '김천 김밥축제' 부스 운영

'나만의 토핑 사이다' 등 체험 콘텐츠

롯데칠성음료가 지역 축제에서 김밥과 칠성사이다를 연계한 체험형 콘텐츠를 선보인다.

롯데칠성음료는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경북 김천시 직지문화공원과 사명대사공원, 친환경생태공원 일대에서 열리는 '2026 김천 김밥축제'에 참여해 칠성사이다 브랜드 부스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부스는 '소풍엔 김밥, 김밥엔 칠성사이다'를 주제로 마련됐다. 방문객이 김천 특산물인 자두를 활용한 자두청과 건과일 등 다양한 토핑을 선택해 음료를 만드는 '나만의 토핑 사이다' 체험을 할 수 있다. 순발력 게임 '김밥엔 청량함을 잡아라'도 진행한다. 행사 참여자에게는 손수건과 키캡 키링, 캔따개 등 관련 굿즈를 증정한다.

축제 방문객을 위한 편의 서비스도 마련했다. 현장에서 칠성사이다를 구매한 고객에게 피크닉 텐트와 돗자리, 파라솔 등을 대여해 김밥과 함께 야외에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롯데칠성음료는 이번 행사를 통해 칠성사이다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소비자 접점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가을 소풍의 대표 먹거리인 김밥과 잘 어울리는 칠성사이다의 청량한 매력을 색다르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이번 브랜드 부스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 축제와 연계한 소비자 참여형 마케팅을 통해 브랜드 매력을 알리고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롯데百, '롯데몰 벨리타운 청량리' 개장

서울 세번째 '롯데타운' 육성 계획

롯데백화점이 서울 청량리에 도심형 복합 쇼핑몰을 열고 동북권 상권 공략에 나선다. 대형 쇼핑몰보다 규모는 작지만 패션과 식음료(F&B), 캐릭터 지식재산권(IP), 체험형 콘텐츠 등을 한곳에 모아 젊은 층과 가족 단위 고객을 동시에 겨냥한다.

롯데백화점은 23일 서울 동대문구 '롯데캐슬 SKY-L65 랜드마크타워'에 '롯데몰 벨리타운 청량리'를 개장한다고 밝혔다. 영업면적은 약 5400평으로, 2011년 롯데백화점 김포공항점 이후 15년 만에 선보이는 서울 지역 신규 점포다. 기존 롯데백화점 청량리점과 연결해 쇼핑몰과 백화점을 아우르는 복합 상업 공간으로 운영한다.

이번 출점은 청량리 일대의 주거·교통 개발에 따른 상권 확대를 겨냥했다.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청량리 재개발 지구와 이문·휘경지구, 전농·답십리 뉴타운 등 인근 지역에는 2030년까지 3만여 가구의 신규 입주가 예정돼 있다. 광역 교통망 확충에 따른 유동 인구 증가도 기대하고 있다.

매장은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5개 층으로 구성했다. 총 50여개 브랜드 가운데 약 80%를 해당 유통사 최초 입점이나 동북 상권 최초·최대 매장으로 채운 것이 특징이다. 롯데그룹의 캐릭터 IP인 벨리곰을 주요 공간에 적용하고 음향과 향기, 휴게 공간 등을 활용해 차별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개장 기념 행사도 진행한다. 구매 고객에게 벨리곰 키링과 짐색 등 한정판 굿즈를 증정하고, 내달 1일까지 경품 행사인 '청량 드로우'를 운영한다. 벨리곰이 매장 곳곳에서 선물을 증정하는 행사와 11월 8일까지 진행하는 닌텐도 '피크민' 팝업도 마련했다.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에 위치한 롯데몰 벨리타운 청량리 외관. /롯데쇼핑

롯데백화점은 이번 개장을 계기로 청량리점을 명동·잠실에 이은 서울의 세 번째 '롯데타운'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쇼핑몰과 기존 백화점 간 이동 동선과 서비스를 연계하고, 백화점 본관도 단계적으로 리뉴얼해 동북권 복합 상업 거점으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신제품

유한양행 '판테놀 베리어' 8종

유한양행이 100년 제약 기술력과 피부 과학 노하우를 집약한 민감 피부 장벽·진정 케어 전문 브랜드를 선보인다.

유한양행은 균일가 생활용품점 다이소에서 '판테놀 베리어' 8종을 새롭게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피부 각질 15층까지 속보습을 채우는 고농축 앰플, 판테놀 5% 함유 크림, 약산성 버블폼, 클렌징밀크, 크림미스트, 수분 로션, 멀티밤, 크림 마스크팩 등을 구성했다.

이번 신제품들은 최대 5%의 고함량 판테놀과 병풀 유래 유산균, 병풀 PDRN, 티트리오일을 최적 비율로 배합한 유한양행 독자 제형 '시카카밍 콤플렉스'를 처방한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전 제품 모두 민감성 피부 자극 테스트를 완료했다. /이청하 기자

동화약품, 프라바펜캡슐



동화약품이 복합형 이상지질혈증 환자에 쓰이는 복합제를 출시하며 만성질환 치료제 포트폴리오를 강화한다.

동화약품은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프라바펜캡슐(사진)'을 공식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프라바펜캡슐은 프라바스타틴나트륨 40mg과 페노피브릭산 110mg을 결합했다. 서로 다른 기전의 두 성분을 처방해 지질 수치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식사 여부와 상관없이 복용할 수 있도록 복약 편의성을 개선했다.

기존 일부 제제와 달리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하루 한 번, 저녁에 1캡슐만 복용하면 된다. /이청하 기자

테슬라 제친 '기아 EV6 GT'… 獨 전기차 평가 종합 1위

車 전문지 '아우토 모토 운트 슈포트' 전기차 비교평가서 총점 585점 획득
안전성, 파워트레인, 주행서 최고점


기아 EV6 GT. /기아

기아 EV6 GT가 독일 자동차 전문지의 고출력 전기차 비교평가에서 테슬라와 중국 브랜드 차량을 제치고 종합 1위를 차지했다.

기아는 EV6 GT가 독일 자동차 전문지 '아우토 모토 운트 슈포트'가 실시한 전기차 비교평가에서 총점 58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는 기아 EV6 GT를 비롯해 테슬라 모델 Y 퍼포먼스, 지커 7GT 프리빌리지 AWD, 폴스타 4 쿠페 듀얼 모터, BYD 씨라이언 7 AWD 엑설런스 등 5개 차종이 참여했다.

EV6 GT는 585점을 받아 576점을 기록한 테슬라 모델 Y 퍼포먼스를 9점 차로 앞섰다. 지커 7GT 프리빌리지는 569점, 폴스타 4 쿠페 듀얼 모터는 531점, BYD 씨라이언 7 AWD 엑설런스는 508점을 받았다.

평가는 차체와 안전성, 편의성, 파워트레인, 주행성능, 친환경성, 경제성 등 7개 항목으로 진행됐다. EV6 GT는 안전성 89점, 파워트레인 105점, 주행성능 96점으로 3개 항목에서 최고점을 기록했다.

EV6 GT는 시속 100㎞에서 정지하는 데 냉간 조건 34.5m, 열간 조건 33.5m를 기록해 비교 차량 중 제동거리가 가장 짧았다. 478킬로와트(kW·650마력)의 최고 출력과 주행 안정성, 조향 성능, 회생제동 기능 등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EV6 GT는 앞서 2023 월드카 어워즈에서 32개국 자동차 기자 100명의 평가를 거쳐 '세계 고성능 자동차'로 선정됐다

기아 관계자는 "EV6 GT가 글로벌 전기차들과의 비교 평가에서 안전성, 파워트레인, 주행성능 등 핵심 부문의 경쟁력을 인정받아 뜻깊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차별화된 전동화 주행 경험과 신뢰할 수 있는 상품성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혁 기자

sh95@metroseoul.co.kr



중진공, 전북서 K-푸드 공급망 강화

22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전날 전북 익산 하림산업에서 'K-푸드 상생협력 거버넌스' 공동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최홍길 하나은행 광주전북영업본부 지역대표, 나일흠 신한은행 호남서부 본부장, 천세기 하림지주 사장, 조한교 중진공 인력성장이사, 김진섭 한국수출입은행 중소중견기업금융부문장이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진공



한난, '따소미 에코AI 미래학교' 첫선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 21일 에코피스아시아, 피플에듀와 함께 '따소미 에코AI 미래학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지역난방공사 김성기 부사장(가운데)이 에코피스아시아 김원호이사장(왼쪽), 피플에듀 김범준 대표(오른쪽)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난

정몽구재단 장학생, 콩쿠르서 잇단 수상

피아니스트 신영호, 이정우, 이주언
유럽·미국 등 국제 콩쿠르서 성과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지원한 차세대 피아니스트 3명이 올해 유럽과 미국의 국제 콩쿠르에서 잇따라 입상하며 세계 무대에서 성과를 냈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문화예술 장학생 신영호(사진)가 지난 17일 이탈리아 베르첼리에서 열린 '제76회 잔 바티스타 비오티 국제 음악 콩쿠르' 피아노 부문에서 2위에 올랐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이정우는 루마니아 제오르제 에네스쿠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했고, 이주언은 미국 국제 콩쿠르 3곳에서 입상했다.

신영호는 지난해 더블린 국제 피아노 콩쿠르 2위와 판초 블라디게로프 국제 피아노 콩쿠르 특별상에 이어 2년 연속 국제 대회에서 입상했다. 2023년부터 재단의 지원을 받아 현재 프랑스 파리 에콜 노르말 음악원에서 수학하고 있다.

이정우는 지난달 제20회 제오르제 에네스쿠 국제 콩쿠르 피아노 부문에서 우승하고 특별상 5개를 받았다.

이주언은 올해 힐튼헤드·지나 바카우어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1위, 클리블랜드 국제 청소년 피아노 콩쿠르에서 2위와 특별상을 차지했으며 오는 11월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 본선에 출전한다.

정무성 현대차 정몽구 재단 이사장은 "어린 나이부터 세계 무대에 도전해온 장학생들의 꾸준한 노력이 의미있는 결실을 맺어 기쁘다"며 "한 번의 수상보다 오랜 시간에 걸친 성장이 중요한 만큼 재단은 앞으로도 학생들이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펼칠 수 있도록 긴 호흡으로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혁 기자

VC협회-한국장학재단, 청년 창업 지원

청년 창업가 발굴, 기업 성장 연결

한국벤처캐피탈협회(VC협회)가 청년 창업 추가 지원에 나섰다.

VC협회는 한국장학재단과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 및 투자유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장학재단이 운영 중인 창업기숙사 입주 기업과 청년 창업가의 투자유치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

양 기관은 ▲청년 창업가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상호 협력 ▲우수 청년 창업기업의 투자유치 역량 강화 교육 ▲벤처투자 시장 동향 및 청년 창업 관련 정보·데이터 공유 ▲각 기관이 보유한 인적· 물적 자원의 지원 및 활용 등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VC협회 이준희 상근부회장은 "청년 창업가의 도전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미래를 여는 중요한 원동력 "이라며 "협약을 통해 유망한 청년 창업가들이 실제 투자 기회를 얻고 기업을 성장시키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우리나라 벤처투자 생태계에 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이준희 상근부회장(왼쪽)과 한국장학재단 박단호 청년지원본부장이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VC협회

/김승호 기자 bada@



삼성전기, ESG·친환경 부문 대통령 표창

삼성전기는 지난 21일 열린 '2026년 친환경 기술진흥 및 소비촉진 유공' 정부포상에서 '녹색산업·ESG경영' 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왼쪽부터)삼성전기 관계자와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 최종민 삼성전기 글로벌안전센터장이 대통령 표창 시상식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삼성전기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전문대졸 첫 공채

정규직 '팀캡틴' 채용… 물류인재 육성
오는 11월 8일까지 지원자 모집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전문대졸업생을 대상으로 첫 공개채용에 나선다. 정규직 팀캡틴으로 채용해 물류 현장 경험과 리더십을 쌓도록 하고, 향후 운영관리자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CFS는 기수제 채용 프로그램인 '물류리더 START 1기'의 모집 규모를 확대하고, 오는 11월 8일까지 추가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직무인 팀캡틴은 전국 풀필먼트센터(FC)에서 입고·보관·출고 등 물류 공정 관리와 현장 안전, 인력 관리 등을 담당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삼성SDI, 국제화학올림피아드 대표단 후원

교육·선발·대회 참가 공식 지원

삼성SDI가 국제화학올림피아드 한국 대표단의 교육과 선발, 대회 참가를 후원하며 기초과학 인재 육성을 지원한다.

삼성SDI는 한국과학창의재단, 대한화학회와 '국제화학올림피아드(IChO) 한국 대표단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삼성SDI는 내년 1월부터 대한화학회가 운영하는 국제화학올림피아드 한국 대표단의 교육·선발·대회 참가를 공식 지원한다. 대회 수상자에게는 별도 장학금도 지급한다.

국제화학올림피아드는 매년 세계 각국 고교생들이 화학 실력을 겨루는 대회다. 한국은 1992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에서 열린 제24회 대회부터 대표단을 파견해 왔다. 내년 제59회 대회는 7월 19일부터 28일까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리며 사전 등록은 내년 3월 시작될 예정이다.

삼성SDI의 이번 후원으로 삼성 계열사들의 국제 과학올림피아드 지원 분야는 화학으로 확대됐다. 삼성전자는 국제수학·물리올림피아드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는 국제생물올림피아드 한국 대표단을 각각 후원하고 있다.

삼성SDI 관계자는 "연구 지원, 교육 후원 등 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미래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삼양식품, 弗 파리 식품박람회 참가

삼양식품은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시알 파리 2026에서 메인 부스와 비즈니스 라운지에 총 5만6000여명의 관람객과 유통 관계자가 방문했다고 밝혔다. 매일 4차례 진행한 시식 행사에는 누적 1만6000여명이 참여했으며, 부스 이벤트 참가자는 2만명을 넘어섰다. /삼양식품



광동제약, 오는 30일까지 친환경 전시회

광동제약은 오는 30일까지 과천 본사 1층에서 참여형 친환경 전시회 '잊혀지지 않는 展'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비영리 예술 공동체 '레프스'와 협력한 행사로 잊히기 쉬운 자연과 사물의 가치를 회화, 도예, 섬유, 설치미술 등으로 재해석한 다양한 장르 작품이 선보여진다. /광동제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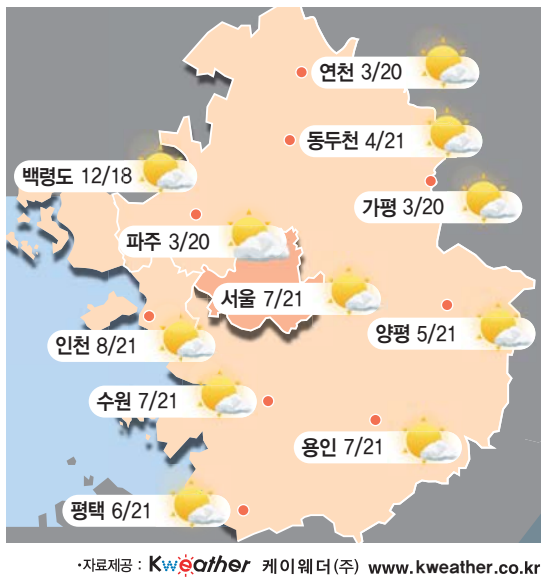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뜸 / 06:48 | 해짐 / 17:45

10월 23일(金)
음력 : 9월 13일

수도권 날씨 7~21℃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인 사

◆ **국가철도공단** ◇상임이사△건설본부장 이명석 △시설본부장 이호룡 △SE융합본부장 전공준 △경영본부장 우현구 ◇본부장△수도권본부장 우기하 △GTX본부장 김현성 △영남본부장 송혜춘 △강원본부장 사덕환 ◇처장△SE융합본부 에너지인프라처장 안성석

부 음

▲강선이(향년 95세)씨 별세, 김정기씨 모친상, 박한조·이종섭(전 삼성물산 홍보수석)·정성훈(더센뉴스 편집이사)씨 장모상 = 22일 오전 5시, 경남 의령군 부성장례식장 특실, 발인 24일 오전 8시, 장지 경남 의령군 부림면 선영. ☎ 055-573-4500

8평 옥탑방에 모인, 짠하지만 유쾌한 인생들!

오늘도 버틴다!

내일은 좀 나아지겠지?

뮤직 드라마

망원동 브라더스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이번엔 진짜 잘될 거야!

예매하기

티격태격하다가, 어느새 식구가 된다!

2026.10.09 ~ 2027.01.31 | 대학로 루미나아트홀

AI시대와 사기의 글로벌화



이승환의 어드바이스

인공지능(AI) 시대를 살다 보니 어제의 상상이 오늘의 현실이 되는 것을 자주 경험한다. 10년 전에는 "설마 영상통화 얼굴까지 속일 줄이야" 했는데 이제는 그런 사건이 빈번하다. AI로 실제 가족의 목소리를 정교하게 모방하는 단계다. 지난 2023년 해외에서 보도된 한 사례를 보면 사기범이 어린 딸의 목소리를 딥페이크로 생성해 "엄마, 납치당했어. 살려줘"라고 전화를 걸어 부모에게서 거금을 뜯어냈다. 불과 30초 정도 SNS에 올린 영상에서 음성 데이터를 뽑아 가짜 목소리를 만들었다고 한다. 또 다른 신종 수법으로는 딥페이크 영상 통화 사기도 있다. 얼굴 합성 기술을 이용해 영상 통화에서 마치 본인인 것 처럼 얼굴을 보여 주며 돈을 요구하는 사기다. AI사기는 기술 발전 속도를 감안하면 머지 않아 대량으로 범행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중의 경각심과 교육이다. 새로운 사기 수법이 나타날 때마다 언론과 공공기관을 통해 '속지 않기 위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영상통화라고 해서 다 믿지 말 것', '전화로 돈 요구하면 바로 끊고 확인할 것', '유명인이 돈 버는 비법을 알려준다는 광고는 무조건 의심할 것' 등 구체적인 예방 수칙을 널리 전파해야 한다. 결국 사기란 '신뢰를 가장한 거짓으로 이득을 취하는 행위'다. 이메일이든 문자든 영상이든 내용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고, 교차 검증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너무 좋은 제안일수록 의심하라"는 오래된 격언은 AI시대에도 유효하다.

최근 사기 범죄의 또 다른 특징은 국경을 넘나드는 글로벌 네트워크화다. 인터넷으로 전 세계가 연결된 만큼 사기범들도 특정 국가에 한정되지 않고, 국제적으로 활동한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발신되는 보이스피싱 전화라고 해도 실제로는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에서 걸려 오는 경우가 대다수다.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신고되는 전환 금융사기의 94%는 중국발 전화로 조사됐다. 나머지도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이 주요 발신지로 지목된다.

글로벌 사기 조직은 갈수록 진화하고 거대해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법의 손길이 미치기 어렵다는 점이다. 사기범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국가 간 경계를 악용한다. 국내 공범들은 붙잡혀도 해외에 도피한 총책은 끝까지 추적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수사에서 조직의 윗선(총책 등)까지 검거되는 비율은 2.2%에 불과하다. 나머지 97% 넘는 경우는 돈을 인출한 말단 가담자나 현장에서 붙잡힌 조직원만 처벌받고 정작 주범은 해외에 숨어 버린다.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려도 상대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지 않으면 그만이다. 실제로 중국, 동남아 일부 국가는 자국민 피해가 아니면 우선순위가 낮다는 이유로 우리 측 공조 요청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글로벌 사기라는 거미줄에 걸려들면 국가의 힘으로도 구해 내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글로벌 네트워크는 자금세탁과 은닉을 쉽게 한다. 피해자로부터 탈취한 돈은 곧장 해외로 송금되거나 암호화폐로 바뀌어 흔적을 감춘다. 한 번 국외로 빠져나간 돈을 다시 추적해 환수하는 일은 지극히 어렵다. 나라별 금융시스템 차이를 악용해 자금을 쪼개고 옮기면 설령 범인을 잡아도 돈은 이미 증발해 있다.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건 결국 자신 뿐이다. 평소에도 해외로 돈을 보내라는 요구나 국제 전화로 걸려 오는 긴급한 부탁에는 무조건 한 번 더 생각해야 한다. 지금도 전 세계 어딘가에 있는 사기범들은 인터넷 너머로 새로운 희생양을 물색하고 있다. 그 목표가 내가 되지 않도록 경계를 늦추면 안된다.

/'사기 프로파일링' 저자

5%대 발행어음의 '금리 착시'



기자 수첩
신 하 은
〈자본시장부〉

연 5.7~8%. 키움증권과 하나증권이 발행어음 특판에 내건 금리다.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은행 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상품이 잇달아 등장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금리가 높다는 사실만으로 상품의 매력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표시된 금리와 실제 투자자가 손에 쥐는 이자 사이에는 투자 한도와 만기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

키움증권이 한글날을 기념해 선보인 발행어음 특판은 세전 연 5.8% 금리를 내세웠다. 다만 만기는 3개월이고 1인당 가입 한도는 100만원이다. 가입자가 한도를 모두 채우고 만기까지 보유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이자는 세전 약 1만4500원이다. 높은 금리를 내걸었지만 실제 혜택은 목적에 맞춰 제한적으로 설계된 셈이다. 이자소득세 15.4%를 단순 적용하면 세후 수령액은 약 1만2300원이다. 연 5.8%라는 숫자가 주는 인상과 실제로 얻는 수익 규모 사이에서 거리감을 느낄 수도 있다.

물론 연 수익률로 금리를 표시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다. 만기가 짧은 상품의 수익률을 같은 기준에서 비교하려면 연율 환산이 필요하다. 문제는 최고금리만으로 상품을 비교할 경우 투자자가 실제로 얼마를 벌 수 있는지, 해당 금리를 얼마나 오래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상대적으로 가려질 수 있다는 의미다.

하나증권도 연 5.7% 금리를 적용하는 발행어음 특판을 선보였다. 만기는 1년이고 1인당 가입 한도는 500만원이다. 가입 대상에 제한이 있지만, 한도를 채워 만기까지 보유하면 세전 28만5000원, 세후 약 24만1000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키움증권보다 금리는 0.1%포인트 낮지만 가입 한도는 5배, 만기는 4배 길다. 이에 따라 만기까지 운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자 수익의 절대 규모도 크게 달라진다. 두 상품의 가입 조건과 운용 기간이 다른 만큼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지만, 최고금리만으로는 실제 투자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온전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은 분명하다.

금리 경쟁 자체를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 투자자에게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려는 경쟁은 선택지를 넓힌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상품의 매력을 설명하는 가장 눈에 띄는 숫자가 연 수익률에 머물러서는 곤란하다. 투자 한도와 만기, 가입 자격에 따라 실제 수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 발행어음의 경쟁력을 가르는 기준은 가장 높은 금리라는 숫자만이 아니라, 투자자가 그 금리로 얼마의 혜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있어야 한다.

/godhe@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23일 (음 9월 13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이제 건강도 생각해야 할 시기입니다. **60년생** 말을 조심해야 할 시기입니다. **72년생** 자기의 자신을 아는 자가 현명한 자입니다. **84년생** 구설수에 오를 수 있습니다.

49년생 앞에 너무나도 큰 산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61년생** 너무나 지쳐 있으니 조금 쉬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73년생** 기분 전환이 필요합니다. **85년생** 귀하가 가던 방향을 고집해야 합니다.

50년생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합니다. **62년생** 중심을 확실하게 잡고 집중하세요. **74년생**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날입니다. **86년생** 오늘 하루를 즐기세요.

51년생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를 사세요. **63년생** 부와 명예가 귀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75년생** 생활을 즐거워하세요. **87년생** 오늘은 파란색 계통의 옷을 입는것이 길합니다.

52년생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맑게 하세요. **64년생** 현실적이면서 낭만적인 삶을 사세요. **76년생** 지나치게 무게 잡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88년생** 갑자기 새로운 모험심이 생깁니다.

53년생 마음이 흔들릴 일이 있습니다. **65년생**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어보세요. **77년생**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여행을 떠나세요. **89년생**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54년생 쓸데없는 고민은 잠시 내려놓으세요. **66년생**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게 됩니다. **78년생** 아직 시기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90년생** 마음을 편히 가지고 여행을 다녀오세요.

55년생 행운이 따르는 즐거운 하루입니다. **67년생** 일처리에 있어서 서두르지 마세요. **79년생** 반가운 옛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91년생** 인간관계에 있어서 지나친 고집을 피우지마세요.

56년생 새로운 일에 착수하는 것은 불리합니다. **68년생** 운세가 좋지 않아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80년생** 참고 인내하면 노력의 결실이 있겠습니다. **92년생** 애정운이 길합니다.

57년생 단시일 내에 이루려는 꿈은 불길합니다. **69년생** 노력하면 반드시 얻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81년생** 만인이 공로를 치하하며 받들게 됩니다. **93년생** 사업이 번창하게 됩니다.

58년생 집안에 머무는 것이 좋겠습니다. **70년생** 좀더 치성을 드림이 좋겠습니다. **82년생** 하늘이 대복을 내려주니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94년생** 오랜 끈기와 인내가 결실을 보게 됩니다.

59년생 건강은 건강할 때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71년생** 동쪽에서 귀한 손님이 옵니다. **83년생** 기회란 늘 오는 것이 아닙니다. **95년생** 호랑이가 날개를 달았으므로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김상회의 四季

십오야 둥근 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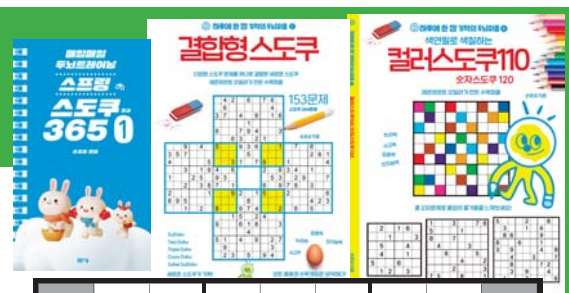
추석은 지났지만, 요즘은 명절이 주는 의미가 예전만 못하다고 느끼는 것은 필자만의 소회일까? 정겨운 초가집 지붕 위로 탐스럽게 떠 있는 십오야 둥근 달과 "넉넉한 마음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즐겁고 여유로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아니더라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추석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심정이 그대로 전해져 온다. 필자의 어릴 적 명절은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게 북적거렸고 흥겨웠었다. 식솔이 많은 잘 사는 집이나 형편이 어려운 집이나를 막론하고 가족들이 모여 앉아 이런저런 음식을 만들며 정겨움이 피어올랐다. 언제부턴 가는 '명절증후군'이라는 말이 심심찮게 등장하더니 이제는 명절 연휴를 이용하여 해외여행을 가는 집이 부지기수인 것 같다. 명절의 의미가 점점 퇴색되어 가고 있다는 방증이다.

필자의 월광사에서는 당연히 합동 추석과 구정 차례를 모신다. 사정상 차례를 지내기 힘든 여건의 신도들의 청에 부합도 하지마는 필자 역시 돌아가신 부모님을 기리며 차례를 모시는 것이다. 합동 차례에 동참하는데 어떤 해에는 신도분이 송편과 떡국 떡 공양을 해주기도 하는데, 이럴 때는 기꺼이 받아 올리기도 한다. 송편은 쌀가루를 뜨거운 물로 반죽해서 안에는 팥이나 깨· 콩· 밤 같은 소를 넣어 반달 모양으로 만든다. 소나무 잎을 깔고 찌기 때문에 송편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자연 그 자체를 담은 추석의 시그니쳐 음식이 바로 송편이요 떡국이다. 보름달 뜨지 않은 한가위를 상상할 수 없듯이 말이다. 사과와 배 등 과일 공양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오래 된 신도 한 분은 직접 집에서 부친 육전을 몇 년째 준비해 오기도 하고, 월광사에서 차릴 뿐이지 대부분의 차례상 음식은 따지고 보니 거의 신도분들이 준비해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성으로 준비한 음식으로 차례를 지내고 나서 감사와 발원은 그 배가 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생각 한입 스도쿠365



문제출제: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4	6					5		7
7	8							
			6		7			
							8	
			9		6			
	1							
			4		3			
							2	8
9		2					4	1

		8		7	6			
							6	
5							4	
		5	7					
2	9	1				3	7	6
					2	9		
	6							1
	8							
			6	1		7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 행·편 집 인	이 장 규	편집국장	윤 휘 종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일반 일간신문, 무료>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6019호		
일간 메트로경제 <유료, 월 2만원>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123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나투레오, '비酒류' 논알코올이 이젠 주류로



안 상 미 기자의
Why, wine 345

스페인 대표 와이너리 '토레스'
논알코올 와인 '나투레오' 선봬
첨가제 없이 풍미·구조감 살려
빠른 성장으로 새 소비층 만들 것



질 세라
토레스
아시아·태평양
수출담당자

세상이 바뀌었다. 밀레니얼과 Z세대 등 소위 MZ 뿐 아니라 베이비 부머까지 전 세대에서 10명 중 7명은 술을 줄이겠다고 답했다. 술을 끊어야 한다면 세상이 무너지는 주당들에게도 운전이든 감기든 술을 참아야 할 순간들은 언제나 찾아온다. 비주(酒)류이자 비주(主)류였던 논알코올이 이제는 주(主)류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스페인 대표 와이너리 토레스(Familia Torres)의 질 세라(Gil Serra) 아시아·태평양 수출담당자는 최근 한국을 방문해 "글로벌 와인 시장은 최근 5년 간 1.5% 감소한 반면 논알코올 와인은 같은 기간 15% 성장했고 앞으로도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토레스 내에서도 논알코올 와인은 물량 비중은 아직 낮지만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카테고리"라고 말했다.

나투레오(Natureo)는 토레스가 내놓은 논알코올 와인이다. 최근 뛰어든 것이 아니다. 논알코올 와인 개발을 위한 연구는 2004년부터 시작했고, 스페인 최초의 논알코올 와인 나투레오가 출시된 것이 2008년이다. 나투레오는 자연을 뜻하는 네이처(Nature)와 제로(O)를 결합했다.

질은 "토레스는 일찍부터 논알코올 와인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해 오랜 연구와 기술 투자를 바탕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며 "단순히 술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와인 본연의 향과 풍미를 최대한 유지해 와인을 즐기는 것과 같은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올해까지 토레스가 논알코올 시설 등에 투자한 자금만 600만 유로가 넘는다.



(왼쪽부터)나투레오 스파클링, 나투레오 무스캇, 나투레오 가르나차 시라.



스피닝 콘 컬럼 방식의 탈알코올 공정.



첨가물 유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나투레오 와인병 뒷면 표시사항.

논알코올 와인은 진공 증류나 역삼투압, 스피닝 콘 컬럼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만들 수 있다.

나투레오는 일단 일반 와인을 양조해 놓고, 알코올을 제거한다. 논알코올 와인을 와인 처럼 느끼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인 아로마를 지키기 위해 진공상태에서 빠르게 회전해 아로마와 알코올을 분리하는 스피닝 콘 칼럼(Spinning Cone Column) 기술을 택했다. 먼저 휘발성이 강한 아로마를 분리하고, 남은 와인에서 알코올을 제거한다. 그 다음 분리해 놓은 아로마 성분을 남은 와인에 다시 더한다. 어디를 봐도 첨가제를 넣거나 향을 더하는 과정이 없다.

이렇게 만든 나투레오 와인의 알코올 도수는 0.0%다. 한 병을 다 마셔도 칼로리는 138밖에 안된다. 일반 와인 평균 칼로리 650 안팎의 5분의 1 수준이다.

그는 "알코올을 제거하면 일반 와인과 비교해 향과 질감, 입안에서 느껴지는 균형이 달라질 수 있다"며 "토레스는 연구개발을 통해 논알콜 와인으로 만들었을 때도 풍미와 구조감이 잘 살아나는 품종으로 양조한다"고 전했다.

'나투레오 무스캇'은 논알코올 화이트 와인이다. 아로마가 풍부한 무스캇 품종의 특성 그대로 감귤류와 꽃, 잘 익은 흰 복숭아 과실의 향이 느껴진다. 알코올이 빠진 대신 단단한 산도가 잘 받쳐주고, 알코올 와인과 같은 질감과 여운이 가장 큰 장점으로 와닿는다. 차갑게 식전주로 즐겨도 좋고, 생선이나 흰살 육류 등과 페어링하기도 좋다.

'나투레오 가르나차 시라'는 논알코올 레드 와인이다. 맛이 가장 궁금했던 와인이기도 하다. 화이트 와인은 원래도 비교적 가벼운 스타일로 알코올의 영향력이 크지 않지만 레드 와인은 알코올이 빠지면 균형감이 확 무너질 수 있단 우려에서다. 일반 레드 와인보다는 가볍지만 블랙베리 풍미와 함께 입안에서는 부드럽고 섬세하다. 와인만 마시기 보다는 음식과 같이 해야 진가를 발휘한다.

질은 "한국 와인 시장이 엔데믹 이후 조정을 겪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와인 경험과 취향이 축적되면서 회복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해외여행과 다양한 식문화 경험을 통해 새로운 음료를 접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만큼 논알콜 와인은 기존 와인 소비를 대체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소비층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smahn1@metroseoul.co.kr

문화 단신

"영화관서 '게임 세계관' 체험해보세요"

롯데시네마 월드타워, IP 팝업 열어
게임 '명조'와 협업… 체험공간 마련
극장만의 인프라와 결합, 영역 확장

롯데시네마 월드타워가 게임과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팝업 행사를 잇달아 열며 오프라인 체험 공간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롯데시네마는 쿠로게임즈의 게임 '명조: 워더링 웨이브'와 협업한 '명조 시네마 위크'를 오는 11월 1일까지 서울 잠실 월드타워점 7층 시네파크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게임 팬들이 작품의 세계관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사전 예약 방문객은 게임·콘서트 영상 감상과 퍼즐, 해금 챌린지 등 6개 미션으로 구성된 스탬프 투어에 참여할 수 있다. 코스어 이벤트와 랜덤 포토카드 키오스크도 운영하며, 굿즈존에서는 한정 상품을 판매한다. 구매 금액에 따라 SD 스티커와 SD 아크릴 클립을 증정하는 행사도 마련했다.

월드타워점을 찾기 어려운 팬들을 위한 상품 판매도 진행한다. 롯데시네마는 전국 20개 거점 매점에서 명조 협업 상품과 콤보 메뉴를 한정 수량으로 선보인다. '명조 랜덤 쉐이커 아크릴 키링'과 '명조 태피스트리'를 단품으로 판매하며, 팝콘·음료와 결합한 콤보 상품도 운영한다.

롯데시네마 월드타워는 최근 식품과 게임,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IP를 활용한 오프라인 행사 유치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추석 연휴부터 10월 17일까지는 오뚜기 '열라면' 출시 30주년과 게임 '스트리트 파이터'를 결합한 특별 팝업을 열었다. 행사장에는 아케이드 게임존과 열라면 팝콘, 대형 라면탑 포토존 등을 마련했다.





롯데시네마 명조시네마위크 팝업. /롯데시네마

오는 24일부터 31일까지는 '하이브 씨네 페스트 2026'을 국내 극장 단독으로 개최한다. 월드타워점 5층과 10층에 아티스트 포토존과 메시지월, 공식 상품 판매 공간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롯데컬처웍스 관계자는 "롯데시네마 월드타워 시네파크는 영화 관람 전후의 동선을 고객이 직접 참여하고 머무는 트렌디한 문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극장만의 몰입형 인프라와 결합해 파트너사에게는 최적의 IP 쇼케이스를, 고객에게는 일상 속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메가박스, 로마·파리 등 500년 예술사 여행

서울 코엑스점서 '시네도슨트' 진행
안현배 미술사학자, 6개 도시 강연

메가박스가 르네상스부터 현대미술까지 약 500년의 예술사를 도시별로 살펴보는 강연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메가박스는 오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서울 코엑스점에서 '2026 시네도슨트' 하반기 시즌2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영원한 예술의 도시-도시로 읽는 예술의 역사'를 주제로 피렌체와 로마, 암스테르담, 런던, 파리, 뉴욕 등 예술의 중심지로 자리 잡은 6개 도시를 조명한다.

강연은 도시별 역사와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예술의 변화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회화와 조각, 건축뿐 아니라 음악과 공연, 문학, 철학 등으로 범위를 넓혀 각 도시에서 특정 예술 사조가 발전한 배경을 짚는다.

첫 강연에서는 메디치 가문의 후원 아래 르네상스의 중심지로 성장한 15세기 피렌체를 다룬다. 브루넬레스키의 건축과 도나텔로의 조각, 보티첼리의 회화를 통해 당시 예술의 특징을 살펴본다. 이어 카라바조와 베르니니가 활동한 17세기 로마, 렘브란트와 베르메르가 시민의 일상을 담아낸 암스테르담으로 강연을 이어간다.

마지막 뉴욕 강연에서는 아모리 쇼와 뉴욕 현대미술관(MoMA) 설립을 비롯해 폴록과 로스코의 추상표현주의, 워홀의 팝아트 등을 통해 현대미술의 중심지가 형성된 과정을 다룬다.

강연은 안현배 미술사학자가 맡는다. 안 학자는 프랑스 파리에서 예술사학과 순수예술사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저서로는 '안현배의 예술수업-오르세의 프랑스 모더니즘 이야기', '미술관에 간 인문학자', '에곤 실레, 예술가의 표현과 떨림' 등이 있다.

메가박스 시네도슨트는 전문가 해설을 통해 미술관 작품과 예술사를 살펴보는 강연 프로그램이다. 이번 시즌2는 10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와 화요일 오후 7시 30분 메가박스 코엑스점에서 총 6회 열린다.

/신원선 기자

티빙, '퀵 VOD'·'팬톡'으로 OTT 차별화

방송시작 5~10분 후부터 감상 가능
콘텐츠 중심으로 소통하는 '팬톡'도

티빙이 방송 시작 직후부터 최신 회차를 감상할 수 있는 '퀵 VOD'와 이용자 간 소통 기능인 '팬톡'을 앞세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에서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

22일 OTT 업계에 따르면 티빙의 퀵 VOD는 TV 방송이 시작된 지 약 5~10분 후부터 해당 회차를 처음부터 감상할 수 있는 서비스다. 방송 시간에 맞춰 접속하지 못하더라도 방송 종료를 기다리지 않고 최신 회차를 시청할 수 있다.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드라마 '100일의 거짓말'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작품은 첫 방송 시청률 5.3%를 기록한 이후 2회 7.6%, 3회 7.0%, 4회 9.0%로 상승세를 보였다. OTT에서도 넷플릭스 '대한민국 TOP10 시리즈' 2위, 티빙 'TOP20' 1위에 오르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같은 작품을 넷플릭스와 티빙에서 모두 시청할 수 있지만 최신 회차 제공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넷플릭스에서는 TV 방송 종료 후 VOD가 공개되기까지 약 1~2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티빙에서는 방송 시작 5~10분 후부터 퀵 VOD를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오후 9시에 시작하는 드라마라면 오후 9시 5~10분부터 첫 장면을 감상할 수 있다. 방송이 진행되는 도중 접속하더라도 놓친 장면 없이 처음부터 시청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콘텐츠를 중심으로 이용자들이 소통할 수 있는 '팬톡' 기능도 선보였다. 팬톡은 작품별 전용 채팅방에서 이용자들이 24시간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커뮤니티 서비스다. 이용자들은 작품 공개 전 기대감을 공유하거나 시청 이후 등장인물의 관계, 주요 장면, 향후 전개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다.

/최빛나 기자 vitna@

“역노화 치료제의 시작은 ‘노화의 정의’… 제도 정비 시급”

질병 인정 안되면 치료제 임상 불가
제도적 장치·표준 진단 지표 필요
美 5년 프로젝트… 노화 표준화 착수



2026 제약·바이오포럼 ‘노화를 되돌리다:역노화 기술이 여는 바이오산업의 미래’의 주제로 21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열렸다. /최규춘 기자

“노화를 질병으로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쏟아부으며 역노화 치료제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이 화두는 여전히 풀지 못할 숙제로 남아있다.

21일 메트로경제가 주최한 ‘2026 제약·바이오포럼’에서 모인 전문가들은 역노화 치료는 ‘노화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정의가 선행돼야 치료제 개발이 현실화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퍼스트 무버’ 위한 제도 장치 시급

‘노화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한계는 노화를 실질적인 의학적 타깃으로 삼고 치료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높은 장벽으로 작용한다. 노화 자체를 임상의 엔드포인트(End-point·임상적 평가지표)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치료제 개발이 불가능한 탓이다.

실제로 현재 시중에 쓰이는 당뇨약이나 비만 치료제 등이 항노화 효과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화 치료제’라는 공식 타이틀을 달고 임상시험을 진행할 수 없는 것은 규제 기관이 노화를 독립된 질환 지표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이 날 기조강연을 맡은 권은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노화융합연구단장은 역노화 치료제 개발은 산업계의 기술적 도전과 더불어 이를 뒷받침할 국가적·제도적 인프라 구축도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권은수 단장은 “노화가 가져올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는 미국 기준 건강 수명 1년 연장 시 약 ‘5경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될 만큼 막대하다”며 “비만이 수십 년간의 과학적 표준화 과정을 거쳐 거대한 블록버스터 치료제 시장을 형성했듯, 노화 역시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장치와 표준화된 진단 지표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 정부는 ARPA-H(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for Health·보건고등연구계획국)를 중심으로 올해 3월부터 ‘프라스퍼(PROSPER)’라는 5년짜리 대규모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특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한국은 가장 정교한 노화 진단 표준과 임상 트랙을 갖추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기존 치료제 활용해 개발 앞당긴다

신약 개발자의 시각에서도 이러한 정의의 모호함은 큰 위험 요소다.

전해민 한미약품 미래성장부문 융합센터장은 “신약 개발은 10~20년 걸리는 과정인데, 처음부터 방향을 잘못 잡는 것은 위험하다”며 “노화의 일부 요소를 전체로 확대해 과대 해석하는 것을 경계하고, 무작정 개발에 나서기 보다 노화의 본질을 명확히 정의하고 타깃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병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측정 가능한 요소 ▲‘이것은 안 좋은 것이다’라는 사회적 합의▲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비만이 대표적인 예다. 비만은 과거엔 ‘개인의 의지 부족’으로 치부 됐지만, 최근 획기적인 치료제가 등장하며 비만도 질병이라는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비만이 각종 성인병의 근원이 된다는 데이터와 체질량지수(BMI)라는 측정 요소도 뒷받침 됐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반면, 측정 요소가 불분명하고 사회적 합의도 부족한 노화가 제도권에서 독립된 질병이나 임상시험의 명확한 엔드포인트로 인정받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신규 물질을 발굴하기보다 다른 질환의 임상시험 과정에서 항노화 효과를 검증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실제로, 최근 네이처(Nature)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위고비’를 투여한 쥐가 투여하지 않은 쥐보다 생존 기간이 유의미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재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대표적인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항노화 효능을 검증하는 광범위한 임상시험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 중이다.

전해민 센터장은 “이미 개발 중인 임상 자산에서 단서를 포착하고, 확신이 생겼을 때 후속 임상을 전개한다면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폭넓게 항노화 치료제가 등장할 수 있다”며 “한미약품은 체내 노화를 정확히 평가하고 이를 정밀하게 역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다각적 방법론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불로장생, 현실의 과학으로 실현하는 도전”

개회사

이 장 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노화 원인 규명하고 되돌리는 연구 본격화”



인류가 오랫동안 꿈꿔온 생명 연장이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새로운 연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노화를 자연스러운 생명 현상으로 받아들이던 관점에서 벗어나 노화를 늦추거나 되돌리려는 시도가 이어지면서다.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는 지난 21일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 주최로 열린 ‘2026 제약바이오 포럼’에서 역노화 기술이 인류의 오랜 꿈을 과학으로 실현하려는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불로초를 찾아 나선 진시황과 시간을 붙잡기 위해 악마와 거래하는 괴테의 소설 ‘파우스트’ 등을 언급하며 불로장생에 대한 열망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화의 생물학적 원인을 규명해 조절하려는 연구가 본격화하면서 역노화 기술의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등 과거에는 실현하기 어려워 보였던 기술들이 발전해 온 것처럼 생명과학 분야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포럼이 인체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전례 없는 도전과 건강한 미래를 향한 인류의 꿈을 실현하는 데 의미 있고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kcrystal@

“이제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핵심 과제”

축사

백 종 헌 국민의힘 국회의원

“역노화·항노화 치료제 개발 지원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재선·부산 금정구)은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지금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21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 주최로 열린 ‘2026 제약·바이오 포럼’에 참석해 “올해 포럼의 주제인 역노화 및 항노화는 전 세계 제약·바이오 산업이 주목하는 미래 핵심 분야”라며 “전문가분들께서 다루시는 연구 성과와 고견이 국민 건강 수명을 늘리고 대한민국 제약바이오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소중한 토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역노화와 항노화 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백 의원은 “이제는 단순하게 오래 사는 것을 넘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과제가 됐다”며 “저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제약·바이오 산업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힘차게 뻗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백종헌 의원은 부산 금정구를 지역구로 둔 재선 의원으로, 21대 국회부터 6년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약해 왔다.

/박경수 기자 gws0325@

“역노화 기술 상용화, 산학연·민관 협력 필수”

축사

이 재 국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

“AI·빅데이터 활용해 신약 개발 효율 높여야”



역노화 기술이 바이오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기초연구 성과를 실제 치료와 의약품 개발로 연결하기 위한 산학연 협력이 중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재국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지난 21일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 주최로 열린 ‘2026 제약바이오 포럼’에서 “새로운 기술이 과학적 가능성을 넘어 환자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치료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역노화 연구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노화 기전 규명부터 신약 후보물질 발굴, 비임상·임상시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의료 현장 적용까지 이어지는 개발 과정 전반에서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첨단 기술을 의약품 개발에 접목하고, 인공지능(AI)·빅데이터를 활용해 개발 효율을 높이는 노력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이 부회장은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전성과 유효성을 충분히 검증한 기술이 합리적인 제도 아래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연구계와 산업계, 정부가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도 산업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 부회장은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이 혁신 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실질적인 성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과감한 투자·유연한 규제로 기술 뒷받침해야”

축사

이 승 규 한국바이오협회 상근부회장

“규제 손질 넘어 신시장에 맞는 제도 필요”



역노화 기술이 바이오산업의 새로운 성장 분야로 부상하면서 기술의 상용화를 뒷받침할 투자 확대와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상근부회장은 지난 21일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 주최로 열린 ‘2026 제약바이오 포럼’에서 “혁신 기술이 시장에 나오려면 과감한 투자와 새로운 기술에 맞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역노화와 항노화 기술이 세계 바이오산업의 주요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새로운 기술이 실제 산업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고 짚었다. 기술 개발 과정에서 반복적인 도전과 실패가 불가피한 만큼 기업과 연구계의 노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규제 체계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전에 없던 기술과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부회장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기 어려운 국내 여건을 언급하면서도 정부가 제도 개선을 통해 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봤다. 혁신 기술의 개발과 상용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산업 생태계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기술의 위험을 관리하면서도 새로운 시도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부회장은 “바이오 산업의 혁신 기술이 시장에 나갈 수 있도록 여러 주체가 힘을 합쳐야 한다”며 협력을 당부했다.

/김수정 기자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61

metroseoul.co.kr

metro® Life

제6019호 2026년 10월 23일 금요일



러닝 열풍에
유통가도 뛴다
브랜드 체험 강화
L1



기아 EV6 GT
독일 전기차 평가
종합 1위
L2

"노화, 치료 가능한 질병… 한국형 역노화 신약개발 앞장"

2026 제약·바이오포럼 기조강연

권 은 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노화융합연구단장

노화 치료, 차세대 바이오경제 원동력 될 것
한국인 혈액 기반 진단 플랫폼 등 연구 박차



21일 열린 '2026 제약·바이오포럼'에서 권은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노화융합연구단장이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노화융합연구단이 노화를 '진단과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규정하고 국산 역노화 기술 개발의 선봉에 섰다.

21일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 주최로 열린 '2026 제약·바이오포럼'에서 권은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노화융합연구단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진단-치료-지연' 통합 치료를 제시했다. 개별 노인성 질환의 사후 치료에 의존하던 기존 틀을 깨고 모든 질환의 근본 원인인 노화 자체를 표적한다.

우선 권은수 단장은 의료 발달로 기대 수명은 늘었지만, 만성 질환에 시달리는 건강 수명은 오히려 줄었다는 한계를 짚었다. 그는 "전체 인구의 20%에 불과한 노년층이 국가 전체 의료비의 절반 가까이를 소모하고 있다"며 "고령화에 따른 고비용 구조를 극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노화는 거스를 수 없는 자연 현상이 아닌 진단과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라며 "건강 수명을 단 1년만 연장해도 경제적 가치가 5경 원에 달한다는 하버드대 연구처럼 노화 치료는 차세대 바이오 경제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독보적인 성과는 해외 진단 기술을 뛰어넘은 한국인 맞춤형 생체 나이 진단 플랫폼 '클락'의 확보다. 대규모 한국인 혈액 데이터에서 DNA 메틸레이션 패턴을 분석하고 이를 인공지능(AI) 알고리즘으로 학습시켰다.

국내 제약사와 공동 연구를 진행한 결과, 특정 약물 투여 후 환자의 생체 나이가 실제로 줄어드는 현상을 기존 해외 진단법이 아닌 생명연의 '클락'이 유일하게 정밀 측정해 기술적 우수성을 입증했다. 향후 피검사 한 번으로 개인의 생체 나이와 노화 속도를 진단하는 등 노화 진단 표준화에 활용될 수 있다.

실질적인 신체 기능을 되돌리는 역노화 치료제 및 지연 솔루션 개발도 이뤄지고 있다. 생명연 노화융합연구단은 운동 시 근육에서 분비되어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전달되는 항노화 유효 물질을 세계 최초급으로 발굴했다.

노화 마우스 모델에 해당 물질을 투여한 결과, 근육량 증가와 신체 활동성 회복은 물론 골다공증, 대사질환, 뇌 인지 기능 등이 개선되는 효과까지 분자 기전 수준에서 검증을 완료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 및 모바일 앱과 연동해 실시간으로 노화 속도를 감독하고 식단과 운동을 처방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구현도 함께 추진 중이다.

미국 정부가 고등연구계획청(ARPA-H)을 통해 노화 임상 표준화 프로그램을 가동하며 글로벌 시장 선점에 나섰지만, 생명연 노화융합연구단은 한국인 독자 데이터와 플랫폼을 무기로 가장 강력한 추격자이자 시장 선도자로 나선다는 구상이다.

권은수 단장은 "한국인 혈액 기반의 진단 플랫폼과 역노화 유효 물질을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신약 개발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대한민국이 역노화 바이오 경제의 새 시대를 이끌도록 연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항노화 신약, 정확한 노화 측정 선행돼야"

강연

전 해 민 한미약품 상무

기존 파이프라인서 항노화 확장 연구 중요



긴 시간을 소요하고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 신약 개발에서 초기 방향을 잘못 설정하는 것은 제약 최악의 위험이다. '항노화·역노화' 역시 정확한 노화 정의와 과학적 측정이 선행되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21일 '2026 제약·바이오포럼'에서 전해민 한미약품 미래성장부문 융합센터장은 항노화 신약개발 성패를 가를 본질적인 접근법을 내놨다.

전해민 상무는 "장기 기능 감소, 체력 저하 등 안 좋고, 측정 가능한, 보다 세분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예를 들면) 안구 시력 저하처럼 특정 기관 노화에 작용하는 약물을 전신 항노화 치료제로 과대 포장하는 시각은 경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 상무는 "항노화 약물을 아예 아무것도 없는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개발하기보다 이미 규명된 기전과 검증된 안전성을 갖춘 파이프라인에서 '항노화 효능'을 확장해 나가는 R&D 전략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미약품은 이러한 본질에 기반해 실질적인 항노화 R&D 전략을 가동하고 있다. 다수의 비만, 대사질환 파이프라인을 확보한 가운데 항노화 효능을 다각도로 평가한다. 특히 노화 지표뿐 아니라 고령층 삶의 질을 위협하는 노쇠·허약도 개선까지 아우른다.

전해민 상무는 "기존 대사 질환 치료제가 가진 염증 완화 기전이 세포 노화 억제에서 활용될 수 있는 단서를 정밀 포착해 적응증을 추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청하 기자

"면역체계 재편 기술로 건강수명 늘릴 것"

강연

조 경 아 메디스팬 대표

면역-노화 상관관계 주목… 선천면역 조절



노화 조절이 세포 수준에서 전신 면역 체계로 진화하고 있다. 21일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 주최로 열린 '2026 제약·바이오포럼'에서 조경아 메디스팬 대표는 선천면역 조절을 통한 획기적인 노화 제어 기술을 공개했다.

조경아 대표는 "그동안 항노화 연구가 세포 단위의 리프로그래밍(Reprogramming)이나 기존 약물의 리퍼포징(Repurposing)에 집중됐다면 메디스팬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면역과 노화의 상관관계'에 주목해 차별화된 돌파구를 찾았다"고 말했다.

메디스팬의 핵심 기술은 선천면역 세포의 반응을 리모컨처럼 제어하는 '면역 리프로그래밍(메타볼릭 에피제네틱)'이다. 동일한 선천면역 세포라도 어떤 자극을 주느냐에 따라 세포를 보호하고 조직을 재생하는 '방어적 면역 체계'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메디스팬이 개발한 MSP-102는 면역세포의 면역반응을 일으키는 특정 수용체(TLR5)를 자극해 면역 체계를 재편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노령 쥐에 MSP-102를 투여한 결과, 털 빠짐 등 외형적 노화가 억제되고 인지·대사·운동 기능이 개선되면서 수명이 연장됐다. 특히 면역력이 회복되면서 감염병으로부터 살아남는 생존률도 급증했다.

조경아 대표는 "면역 재편 기술을 통해 초고령화 시대에 걸맞은 실질적인 건강수명 연장 치료제를 완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청하 기자

"오가노이드, 항노화 연구 핵심 플랫폼으로"

강연

유 종 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

'미니장기' 활용해 후보물질 효능검증·관찰



인체 장기를 축소·재현한 '오가노이드'가 항노화 물질 개발을 위한 연구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 장기와 유사한 구조와 기능을 구현해 노화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고, 이를 개선할 후보 물질의 효능을 검증할 수 있어서다.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는 21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열린 '2026 제약·바이오포럼'에서 '3차원 미니장기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항노화 물질 개발 전략'을 발표했다.

유 대표는 "오가노이드는 실제 인체 장기를 모사하는 3차원적인 장기"라며 "심장처럼 박동하거나 뇌처럼 신경 신호를 생성하는 등 장기별 기능을 재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가노이드는 노화나 손상으로 인한 장기의 변화를 재현한 뒤 후보 물질을 처리해 기능 회복 여부를 관찰하고 정량화할 수 있다. 동물실험이나 인체시험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세포 간 상호작용과 물질의 작용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이 같은 기술적 가능성은 제도적 변화와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다.

항노화 연구에도 폭넓게 적용된다. 장 오가노이드로 장벽 회복과 유산균의 효과를 평가하고, 혈당 조절에 관여하는 GLP-1 분비를 촉진하는 소재를 탐색할 수 있다. 면역세포와 함께 배양해 암세포 공격 과정을 관찰하거나, 피부·간 오가노이드로 탈모·새치 및 지방 축적 개선 물질의 효능을 살펴보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김서현 기자 seoh@

"세포 정보 복원… 노화 역전 가능성 있어"

강연

양 재 현 카이스트 뇌인지과학과 교수

노화, 세포정보 손실 주장… 역노화 가능성 제시



노화는 세포에 손상이 쌓이는 현상을 넘어, 세포가 자신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잃어가는 과정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정보를 복원하면 노화로 저하된 세포 기능을 되돌릴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양재현 카이스트 뇌인지과학과 교수는 21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열린 '2026 제약·바이오 포럼'에서 '세포의 정보로 이해하는 노화와 역노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양 교수는 "다양한 곳에서 노화는 비가역적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노화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조절이 가능하고 제어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포의 정보를 유전정보와 후성유전 정보로 구분했다. DNA 염기서열인 유전 정보가 컴퓨터의 '하드웨어'라면, DNA가 접히고 배치되는 방식 등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후성유전 정보는 '소프트웨어'에 해당한다. 그는 노화 과정에서 세포의 물리적 손상뿐 아니라 후성유전 정보의 손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봤다.

실제로 연구진은 후성유전 정보를 인위적으로 교란한 생쥐에서 노화가 빨라지는 현상을 확인했다. 반대로 세포의 상태를 재설정하는 OSK 유전자를 활용해 신경 재생과 시력 개선도 관찰했다.

양 교수는 "세포의 노화를 되돌리는 기술은 눈뿐만 아니라 뇌와 간, 심장, 근육, 피부 등 다양한 장기에서 연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EMPOWER EVERY POSSIBILITY

세상의 모든 가능성, 에너지로부터



LG 에너지솔루션